



6 Interview
자랑스러운 동국인
올림픽금메달 김광선 동문
올림픽금메달리스트 김광선 동문을 만나
그의 철학과 학창시절의 추억에 대해
들어봤다.

동대신문

금주일언

태산(泰山)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역경(逆境)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잡보장경〉 제 3 권 용왕개연

www.dgupress.com

The Dongguk University Weekly Newspaper

제1499호 2010년 (불기 2554년) 11월 15일 월요일

Cover Story 구성원의 눈을 통해 바라 본 올바른 총장

대학발전은 물론 구성원과 소통이 중요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만한 총장 선출해야

최근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 초미(焦眉)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일이 있다. 바로 '차기 총장 선출'에 관한 것이다.

오영교 총장의 임기가 막바지에 접어드는 것과 동시에 차기 총장을 선출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의 출범(出帆)이 바로 그것이다.

총장 선출 위한 총추위 출범

지난 8일, 차기 총장에 적합한 후보자를 법인에 추천하는 역할을 하는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가 출범해 첫 회의를 가졌다.

총추위는 첫 회의에서 학담 스님을 위원장으로 선임(先任)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총추위 세칙과 향후 일정을 수립했다.

총추위의 출범과 동시에 총장 선출을 위한 사전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총추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자, 학내 구성원들 역시 차기 총장 선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발전에 총력 다해야

총추위 규정의 제3조를 보면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자로, 대학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비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소지(所持)하며, 교유와 행정 및 재정확충 등 대학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총장 후보자의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즉, 우리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인사무처의 유한림 부장은 "우리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있고, 우리대학의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원만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분이야말로 바람직한 총장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많은 학내구성원들 역시 '대학발전을 이끌어 나갈 총장'을 염원하고 있었다. 신현우(행정94졸) 동문은 "학교를 위해 재정적 투자를 아끼지 않는 총장이었으면 좋겠다"며 "학교 발전상에 대해 확실하고 바람직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중 몇몇 구성원들은 차기 총장이 혁신(革新)적인 발전을 이루길 바란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민병록(영화영상학) 교수는 "개혁 성향을 지니고 있어 학내의 문제점들을 과감히 바꿀 수 있고, 재단에서의 학교 투자와 외부에서의 발전 기금을 확충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개혁적인 총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남현(경영98졸) 동문은 "우리대학의 차기 총장으로는 CEO형 총장이 선출돼 학교 발전을 위해 혁신적인 사업을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전진(前進)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구성원과 소통하려는 노력 필요

대부분의 학내 구성원들은 모두 대학발전을 이끌어 나갈 총장을 바라고 있는 한편, 학내구성원과의 소



통이 원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인우 총학생회장은 "학생과 학생회의 의견 및 권리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총장을 원한다"고 말했다. 또 박인우 총학생회장은 "현 총장은 학내 구성원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며 "다음에 선출될 차기 총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분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용수(중어중문) 교수는 "학내 상황을 잘 파악하고, 모든 구성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내부인사가 총장으로 선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조성혜(법학) 교수는 "CEO적인 면모보다도 대학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학내 구성원들의 요구를 잘 수용하는 총장이 선출돼야 한다"며 구성원들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다른 의견을 제시한 구성원도 있었다. 이원용(회계89졸)

동문은 "학교 발전은 물론 교직원과 교수, 학생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며 "소신 있고 강한 리더십을 지녀, 구성원 모두가 반발 없이 따를 수 있는 사람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최인숙(철학) 교수는 "차기 총장으로는 대학의 특수성을 알고, 대학을 순수하게 발전시킬 사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총추위는 다음달 8일에 가장 '적격자라고 판단되는' 후보자 3~5인을 법인에 추천하게 된다.

총장이란 직책은 4년 동안 우리대학을 이끌어 나갈 역할인 만큼 차기 총장 선출에 우리대학의 명운(命運)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 총장을 선출할 때 학내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학내 구성원이 '적격자라고 수긍할만한' 총장을 선출해야 할 것이다.

특별취재반 dgupress@dongguk.edu



부모님 때문에 괴롭다고요?

우리가 아는 효도는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것이지요.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려 술도 마시지 말아야 하고, 영화나 요즘 유행하는 TV 프로그램 보기 보다는 전공서적을 보아야 합니다. 동아리방에 자주 들락거리기 보다는 도서관에 자주 들락거리야 하고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떤가요? 부모님의 말을 안 듣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하지요?

이렇게 부모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게 되면 우리는 괴롭다고 느낍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부모님을 우리는 부모님이 틀렸다고 보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부모님 말이 옳다면 나를 괴롭히는 것인가요? 부모님이 틀렸다면 나를 괴롭힐 수 있지만, 부모님이 옳다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님과 관계에서 왜 괴로울까요?

바로 우리의 내면에 갈등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 말씀을 들을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까 하는 마음이 공존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괴로운 거예요. 마치 사춘기인 것처럼 말이지요. 뭔가 변신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안주하고 싶기도 한 마음이 왔다갔다하면서 계속 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부모님의 말을 듣거나, 내 의지대로 살아가거나. 혹은,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흘러가는 대로 괴롭게 사는 방법이 있지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망, 욕심이 있기 때문에 괴롭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효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효도라는 것은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것이지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아버지 숫도다나왕의 바래대로 대성왕국의 지도자가 되는 길이 아닌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길을 가셨지요. 하지만 외부의 경계에 매이지 않고 진리에 맞게 살아가신 부처님을 불교에서는 최고의 효자라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효도란 바로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부모님을 미워하지 않고 꿈을 가진 젊은이로서 세상의 유혹과 경계에 매이지 않고 현재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유수 스님
문경정토수련원 원장

금주의 동대신문 4 [특 집] 2011년 학생회 선거 공약 7 [기획] 총장선출방식에 관한 여론 12 [문화] 보는 소리 듣는 영상

동대학술상 동대문학상 모집 11월 21일까지
다음 신문은 11월 29일자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세상을 비추는 힘 | 동국대학교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세상을 깨우는 이름 | UNIVERSITY

동국대학교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총장님을 모십니다

응모자격
 - 동국대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인격과 능력을 갖춘 분
 -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본교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교수 또는 총장의 자격과 능력을 가진 교외 인사로서, 교직원과 동문 및 불교계(조계종 재적승려)를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추천을 받은 분

제출기간
 2010.11.24(수)-2010.11.25(목) 17시까지

문의사항
 TEL. 02)2260-3005~7/FAX. 02)2260-8973
 홈페이지(http://www.dongguk.edu)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갈 총장님을 모십니다

응모자격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를 대표할 수 있는 인격과 능력을 갖춘 분
 -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경주캠퍼스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교수 또는 경주캠퍼스 총장의 자격과 능력을 가진 교외 인사로서, 교직원과 동문 및 불교계(조계종 재적승려)를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추천을 받은 분

제출기간
 2010.11.24(수)-2010.11.25(목) 17시까지

문의사항
 TEL. 02)2260-3005~7/FAX. 02)2260-8973
 홈페이지(http://web.dongguk.ac.kr)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회전무대

양식보다 양심

○...얼마 전 우리대학에 5천 만 원을 기부했던 익명의 기부자에 이어 또 다른 익명의 스님이 우리대학에 거금을 쾌척해 화제. 지난 10일 한 스님이 우리대학을 찾아 대학의 발전상을 보고 선뜻 5천만 원의 기부를 결정하셨다는 것.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신분을 밝혀달라는 학교 측의 거듭된 요구에도 스님은 한사코 손사래를 쳤다는 후문.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이따른 익명의 기부자들. 그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꼭 간직합시다”

더 빠른 변화

○...동국혁신을 위한 벤치마킹 경진대회 결과가 발표났는데. 벤치마킹 경진대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대학행정 서비스 분야에서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년 2학기마다 실시하는 행사. 실제로 최우수상을 받은 김준영 군의 ‘동국 문자친구’ 아이디어는 수상과 동시에 즉각 행정에 반영되었는데. 아이디어도 아이디어지만 빠른 반영에 놀랄 따름.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빠르게 변화는 대학행정 서비스 분야보다, 더 빠른 반영률!”

철저한 준비

○...우리나라가 G20 첫날부터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는데. 각국에 홍보까지 했건만 청계천에 전시한 각국정상들의 인형 중 호주 총리의 인형이 오스트리아의 민속 의상을 입고 있었던 것. 이에 대해 호주 측에서 항의하자 서울시는 “오스트리아와 호주가 같은 유럽이라 생각해 이해해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해명하면서 논란이 더 뜨거워 졌다는데.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철저한 준비의 결과가 의장국의 국격상실?”

내달 8일 총장후보 선출해 재단에 보고

총장추천위 지난 8일 전체회의 갖고 후보선출 일정 확정

제 17대 총장 후보자 선출에 관한 논의(論議)를 진행하기 위한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1차 전체 회의’가 지난 8일 본관 5층 교무회의실에서 개최(開會)됐다.

이날 열린 1차 전체회의에서는 총추위 위원장 선임과 실무위원회 구성, 일정 수립 및 운영 세칙 검토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총추위 1차 전체 회의’에서는 학담 스님(대승사 주지)이 총추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학담 스님은 총추위 위원장 선임(先任)과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 “총장 선출에 함께 힘을 모으게 되어 감사드린다”며 “진행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 화합하며 토론을 통해 바른 길을 모색(模索)하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위원회

구성도 함께 이뤄졌다. 실무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총추위 운영을 위해 조직한 것으로, 총 7명의 실무위원으로 구성됐다.

또한 총추위는 이날 진행된 2010년도 총추위 일정 관련 논의를 통해 앞으로의 일정을 최종 수립 했다. 수립된 일정에 따르면 총추위는 8일 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5일에서 25일까지 초빙 공고를 진행한다.

지원자 접수는 초빙 공고와 더불어 24일에서 25일까지 진행되며, 지원자의 자격심사와 소견발표, 심사 및 투표 방식 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위원회 2차 회의는 29일에 개최된다.

이어 다음달 2일에는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질의방법 및 질의사항을 정리할 예정이며, 다음달 8일에 열리는 3차

전체회의에서는 후보자 소견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최종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날 소견발표는 인터넷으로 생중계 될 예정이다.

한편 새롭게 개정된 총추위 운영세칙에는 2006년 당시 운영세칙 대비 제 6조, 제7조 등 두 개의 조항이 신설(新設)됐다. 새롭게 제정된 운영 세칙 제 6조는 사전선거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이다. 안에 따르면 총장후보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격격(適格)여부 심사 등의 행위가 일체 금지되며, 총장 후보대상자는 총추위 위원과 접촉할 수 없다.

한편 경주캠퍼스 총장 후보 선출을 위한 소견발표 및 후보선정은 내달 9일 이뤄질 예정이다.

강기모 기자 km1004@dongguk.edu

신인 드래프트 통해 축구부 7명 프로 진출

최보경 선수, 신인 전체 2순위로 ‘울산 현대 호랑이’ 입단

우리대학 축구부 선수 7명이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프로 무대에 진출하게 됐다.

지난 9일 있었던 2011 쏘나타 K리그 신인드래프트에서 최보경이 울산 현대에 1순위(전체 두 번째)로 지명(指名)됐다. 또 안일주(포항 스틸러스 2순위), 경제윤(FC 서울 5순위), 노형석(광주FC 6순위), 이호창(인천 유나이티드 번외), 조남기(FC 서울 번외) 등 총 6명이 내년 K리그 무대를 누비게 된다. 이외에도 조상현이 고양 국민은행의 유니폼을 입

고 N리그에서 뛰게 된다. 이번 드래프트 결과에 대해 체육실의 임종빈 직원은 “지난 추계대학 연맹전에서 정상에 오른 것이 선수들의 시장 가치를 높인 것 같다”며 “선수들이 프로 무대에서도 지금까지 좋은 활약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드래프트를 통해 포항에 지명된 안일주는 “당초 2순위 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했었다”며 “소기(所期)의 목표를 달성한 만큼 내년엔 더 큰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번 드래프트

에 참여한 선수들의 계약기간은 우선지명선수와 1~3순위가 3~5년, 4~6순위는 1~5년이며, 번외지명선수의 계약기간은 1년이다.

연봉(기본급연액) 상한선은 작년과 동일(同)한 1순위 5천만 원, 2순위 4천4백만 원, 3순위 3천8백만 원, 4순위 3천2백만 원, 5순위 2천6백만 원, 6순위 2천만 원으로 지명 순위별 차등 지급하며, 번외지명(주가지명 포함) 선수의 연봉은 1천2백만 원이다.

최익래 기자 irchoi@dongguk.edu

학교생활 안내하는 ‘문자서비스’ 실시

문자로 학교생활 궁금증 및 불편사항 해결

우리대학이 문자 한 통으로 학교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문자안내서비스(013-3366-5572)를 지난 1일, 국내 대학 최초로 실시(實施)했다. 이로써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 겪게 되는 불편사항이나 간단한 질문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바로

해결(解決)할 수 있게 됐다. 문자안내서비스는 이번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한 뒤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한 건당 20원 정도의 요금이 부과(賦課)된다.

정창근 교수, 경찰대학원장에

내년 3월 국내 첫 개원 예정



정창근(국체통상학과)교수가 내년 3월 개원하는 초대 경찰사범대학원장에 임명됐다.

정 교수는 현재 행정대학원장과 전국 행정대학원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프로에서도 영리한 수비 펼칠 것”

포항에 지명된 축구부 주장 안일주 인터뷰

우리대학 축구부의 안일주가 지난 9일 있었던 신인드래프트를 통해 K리그 포항스틸러스에 2순위로 지명됐다. 팀 수비의 중추(中樞)이자 주장으로 팀을 이끌었던 안일주를 만나봤다.



안일주는 프로로 지명된 소감에 대해 “4년간 힘들었던 순간들이 주마등(走馬燈)처럼 지나간다”며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구단에 입단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또 그는 “끝은 새로운 시작인 만큼 한편으로는 긴장과 걱정도 앞선다”고 속내를 털어냈다.

개인의 운동만으로도 힘들었지만, 안일주는 주장으로서 다른 선수들보다 더 많은 역할을 맡아 팀을 이끌어왔다. 그가 처음 주장이 됐을 때에는 권위적인 리더가 되고자 후배들을 질타(叱咤)하고 가끔은 기합도 줬다고 한다. 그러나 팀의 부진이 계속되자 그는 방법을 바꿨다. 안일주는 “1학년이 4학년과 서슴없이 장난도 치는 편한 분위기 형성을 위해 노력했다”며 “이러한 분위기가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수비수는 득점을 하는 공격수에 비해 관심을 덜 받는다. 그럼에도 안일주는 참가하는 대회마다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세간(世間)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는 “프로 무대에서도 거칠고 티프한 수비보다는 지금껏 그래왔듯 영리한 두뇌 플레이로 수비라인을 잘 이끌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한편 안일주는 자신을 2학년 때부터 지도해 온 김종필 감독에게 “훈련의 양이 예전 감독님보다 훨씬 많아 적응하기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훈련이 나의 밑거름이 된 것 같다”며 감사한 마음을 드러냈다.

올해 자신이 그러했듯, 내년에도 후배들이 좋은 성적을 거둬 좋은 순위로 프로에 입단하길 바란다. 안일주. 팀을 떠나면서도 주장으로서 후배에 대한 격정을 멈추지 않는 그가 프로 무대에서도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로 동국의 이름을 드높이는 날을 기대해 본다.

최익래 기자 irchoi@dongguk.edu

공과대, 창의적 종합설계경진대회 입상

구관조 팀 최우수상, pro-E 팀 특별상 수상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主 管)하는 ‘2010 창의적 종합설계경진대회’에서 우리대학 두 팀이 각각 최우수상과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대학은 유재범(기계4), 이학재(기계4), 김기태(기계4), 전소진(기계4), 전현우(컴공4), 최윤걸(전기3) 학생으로 구성된 ‘구관조 팀’이 ‘바코드리본 공항 수하물 위치정보 시스템’이라는 작품으로 최우수상(지식경제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이동학(기계4), 강병주(기계4), 김병훈(기계4), 이은수(기계4), 명혁진(전자전기4) 학생으로 구성된 ‘pro-E 팀’이 ‘Auto Cart System’으로 특별상(전국공과대학장협의회장상)을 수상했다. ‘pro-E 팀’은 지난달 21일, 이 작품으로 ‘2010 전국 메카트로닉스 경진대회’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기간: 2010년 10월 28일 ~ 2010년 11월 10일

장학기금

성관스님(2,200만원), (재)우덕재단(1,847만5천원), 정현스님(1,700만원), 조종장학(1,594만원), 정현스님(800만원), (주)하이파강(800만원), 연봉 태연스님(600만원), 조영록(500만원), 최석권(500만원), 연봉 태연스님(400만원), 김인경(300만원), 성관스님(300만원), (재)은정불교문화재단(300만원), 전영일(140만원), 정각원(100만원), 조영래(100만원), 설재윤(100만원), (주)대성강업(100만원), 금강장학회(100만원), 우학스님(50만원), ROTC4기동기회(50만원), 여익구(20만원), 박광호(20만원), 송승열(20만원), 박경규(10만원), 송문현(10만원), 서림기획(7만원), 장진(5만원), 하찬호(5만원), 김남영(5만원), 허진석(5만원), 김유태(5만원), 김규태(5만원), 송효영(5만원), 김호산(5만원), 김계인(5만원), 김용호(5만원), 박연이(5만원), 이두이(5만원), 이상문(4만원), 광동영(4만원),

유상록(4만원), 최창영(3만원), 김성수(3만원), 임종호(3만원), 김종식(3만원), 김원태(3만원), 권기섭(3만원), 송석현(3만원), 김상태(3만원), 정승용(3만원), 조당호(3만원), 김정근(3만원), 이지희(3만원), 전형준(3만원), 이상익(3만원), 박창근(3만원), 현대화훼종합센터(3만원), 이혜선(2만원), 김정용(2만원), 이원규(2만원), 윤준호(2만원), 김금용(2만원), 박혜경(2만원), 정환섭(2만원), 강영진(2만원), 김용주(2만원), 전포성(2만원), 고철환(2만원), 이경성(2만원), 허진(2만원), 진승림(2만원), 이선경(2만원), 정진모(2만원), 박보경(2만원), 신은희(2만원), 하경천(2만원), 조명래(2만원), 신동주(2만원), 서무영(2만원), 최서연(2만원), 이준엽(2만원), 구한모(1만원), 김경영(1만원), 이락우(1만원), 조태수(1만원), 이정덕(1만원), 최보영(1만원), 박태환(1만원), 서동일(1만원), 김우익(1만원), 김홍희(1만원), 조진권(1만원), 정우경(1만원), 최아영(1만원), 전용택(1만원), 이혜주(1만원), 심규홍(1만원), 채윤미(1만원), 최

문정(1만원), 최우혁(1만원), 정창수(1만원), 이혜운(1만원), 손상국(1만원), 류경자(1만원), 박순자(1만원), 권순민(1만원), 박정훈(1만원), 박정훈(1만원), 김진우(1만원), 박동재(1만원), 신유정(1만원), 김덕년(1만원), 정진모(1만원), 김지태(1만원), 김체성(1만원), 손정자(1만원), 곡진경(1만원), 허만진(1만원), 서찬영(1만원), 신정자(1만원), 박외정(1만원), 김순조(1만원), 박순희(1만원), 손영수(5천원), 조아라(5천원), 김진용(3천원), 김윤경(3천원), 김위웅(2천원), 김성준(2천원)

단위기금

백시원(2,050만원), 김진현(864만1천원), 최고위치안정책과정(702만원), 김수아(300만원), 스타점23(200만원), 조부기(100만원), 디에이그룹(100만원), 한중물(100만원), (주)파에이씨건축사사무소(100만원), (주)건축사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100만원), 김중만(100만원), 이상하(10

만원), 양경승(10만원), 김종성(10만원), 도연연(5만원), 안영숙(5만원), 추교훈(5만원), 김진구(5만원), 김명화(5만원), 이상록(3만원), 최덕규(3만원), 정재훈(3만원), 정학수(2만원), 이종연(2만원), 이기철(2만원), 윤주호(2만원), 김병태(2만원), 안명수(2만원), 신성철(1만원), 정철(1만원), 조창성(1만원), 이재학(1만원), 황정수(1만원), 이광석(1만원), 김중성(1만원), 김영미(1만원), 이재근(1만원), 하해웅(1만원), 백광득(1만원), 한민환(1만원), 조용석(1만원), 최경태(1만원)

특정목적기금

(재)대한불교진흥원(1,600만원), 정각원(816만2천원), 최고위치안정책과정(648만원), 박보경(110만원), 경주정각원(103만원), 능륜스님(100만원), 김윤규(50만원), 최진식(20만원), 최재진(10만원), 공석돈(10만원), 장규태(10만원), 안대승(10만원), 정승재(10만원), 이준형(10만원), 무구스님(5만원), 배은석(5만원), 김자년(4만원), 변형하(3만원), 김현경(3만원), 조화자(3만원), 배운주(3만원), 이시형(2만원), 김명균(2만원), 김덕표(1만원), 고복우(1만원), 박상달(1만원), 정원기(1만원), 김맹희(1만원), 이태재(1만원), 김종구(1만원), 최계영(1만원), 박철수(1만원), 하운실(1만원), 도은스님(1만원), 태연스님(1만원), 이철희(1만원), 박광영(1만원), 김동석

(1만원), 박계훈(1만원), 이수아(1만원), 류창원(1만원), 박봉환(1만원), 함민희(1만원), 김향자(1만원), 김경(1만원), 서경진(1만원), 이예자(1만원), 김외경(1만원), 좌성용(1만원), 이종원(1만원), 강정실(1만원), 자광스님(1만원), 최경훈(1만원), 이양희(5천원), 도은스님(5천원), 김태원(5천원), 손민준(5천원), 임성진(5천원), 변지훈(5천원), 변지희(5천원), 김남열(5천원), 김애련(5천원), 정위자(5천원), 신태속(5천원), 오세두(5천원), 이종식(5천원), 박경숙(5천원), 김양순(3천원), 심경열(3천원), 양귀종(3천원), 윤명순(3천원), 이승민(3천원), 이양승(3천원), 오영(3천원), 오기운(3천원), 성은옥(3천원), 이윤진(3천원), 박주영(3천원), 박수연(3천원),

최정연(3천원), 권용옥(3천원), 윤운자(3천원), 권태형(3천원), 강은모(3천원), 유종열(3천원), 김무선(3천원), 유한서(3천원), 유한준(3천원), 김선미(3천원)

비지정발전기금

윤성필(2만원), 최봉림(1만원), 조일제(1만원), 김용민(1만원), 송경호(1만원), 유승식(1만원), 김계영(1만원), 양수희(1만원), 송은경(1만원), 현영대(1만원), 유상원(1만원), 이근성(5천원)

병원발전기금

이순옥(10만원), 김위동(3만원), 온상오(2만원), 김형준(1만원), 홍지혜(1만원), 홍범진(1만원), 임선화(5천원)

기부금 납부안내

당신의 사랑이 있기에 동국대학교가 더 큰 날개를 펼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 참여가 가능합니다.

- 전화: 02-2260-3300, 3794-5, 8992-3
· 팩스: 02-2260-3796
· 홈페이지: http://ilove.dongguk.edu

중앙기구 · 단과대 학생회 선거 실시

총학생회 선거에 권기홍(법학4)-김무성(교육3) 조가 단독 출마

42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총여학생회, 졸업준비위원회 등 중앙기구 선거를 실시(實施)한다. 동시에 각 단과대별 정·부회장 선거도 치러질 계획이다.

후보등록은 지난 12일에 마감됐으며, 오늘(15일) 후보자가 공고된다. 선거 운동기간은 오늘부터 28일까지며, 투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일 동안 이뤄진다.

29일과 다음달 1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나,

2일은 오후 6시까지만 투표가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학생회 선거에는 ‘당신의 목소리가 달는 순간 R·T·You(ReTweet&Run To)’를 선거구호로 내세운 권기홍(법학4)-김무성(교육3) 조가 단독 출마했다.

권기홍-김무성 조는 △2011년 등록금 동결 및 단과대별 등록금 자율책정 폐지 △수강신청 대란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상시정원관리시스템 재논의 및 인문학 살리기

Book Festival △바이오대 일산캠퍼스 이전 학생-학교 합의문 체결 △무인도서반납기·무료복사기·대형프린터기 설치 △생리공결제 시범도입 및 여자화장실 여성용품 자판기 확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대학생 공동 행동참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총여학생회 선거에는 이에림(정보통신2)-이은화(불교미술2) 조가 출마했으며, 졸업준비위원장 후보로는 김동규(컴퓨터공학3) 군과 주현지(통계학3) 양이 각각 입후보

했다.

단과대별 정·부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문과대=조승현(윤리문화4)-진기훈(국어국문4) △법과대=곽호남(법학2)-최원혁(법학2) △사과대=최장훈(정치외교3)-최아라(식품산업2) △경영대=황재웅(경영3)-이재희(경영학부1) △공과대 기호1번=이현재(기계로봇에너지공학2)-이규호(컴퓨터공학3), 기호 2번=강현구(산업시스템공학3)-이태훈(전자공학3) △사범대=이희정(역사교육3)-남보라(국어교육3)이다.

한편 총대의원회와 불교대학, 이과대학, 바이오시스템대학, 예술대학의 경우 아직 최종 후보자가 등록되지 않았다.

김보혜 기자 boo@dongguk.edu

익명의 스님 본교에 5천만 원 기부

지난 10일 학교 찾아 “이공계 장학금 써달라” 당부

익명의 스님이 지난 10일 우리 대학에 5천만 원을 기부했다. 스님은 기부 이유에 대해 “인재의 불사(佛事)를 위해 종립학교에 기부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최근 몇 년간 동국대의 빠른 변화 모습과 괄목(刮目)할만한 여러 분야의 성과를 보고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스님은 기부

금에 대해 “우리나라는 국토도 좁고 자원도 한정(限定)돼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국가 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이 기부금이 이공계 분야를 공부하는 고학생들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본 기부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우리대학 이공계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제5회 총장과의 데이트 지난 9일 개최

오 총장 “108 프로젝트 보람 … 이제는 떠날 때”

총장과의 데이트가 지난 9일, 본관 로즈버드에서 진행됐다. 이날 총장과의 데이트에는 총 6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參席)했다. 학생들은 주요 학내 이슈를 비롯해 오영교 총장에 관한 내용 등 그동안 궁금하던 점들에 대해 질문했다.

총장과의 데이트에 참석한 최문기(수학교육4) 군은 오 총장에게 “입기 중 여러 사업을 했는데 완수(完遂)하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없느냐”고 질문했다. 오 총장

은 그에 대해 “동국대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정한 108프로젝트를 시행했고, 재정 확보 등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대부분 완료했다”고 답했다. 또 향후 거취에 대해 오 총장은 “지난 4년 동안 계획했던 일들을 대부분 이뤘고, 이제는 떠날 때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장과의 데이트를 신청한 송정우(체육교육4) 군은 “총장님의 삶의 철학을 느낄 수 있는 진술한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G20 비즈니스 서밋 참가자 강연회

메트라이프의 윌리엄 토포타 사장 초청

미국의 생명보험사 메트라이프(MetLife)의 사장 윌리엄 토포타(William J. Toppeta) 사장이 지난 10일 학생세미나실에서 ‘국제 금융 서비스에서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토포타 사장은 서울에서 열리는 G20 비즈니스 서밋(Business Summit)에 참석차 한국을 방문, 우리대학에서 강연을 실시했다.

이 날 열린 강연회는 영어강의로 진행됐으며 약 120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또, 사전에 학생들에게 질문의문을 수거하여 토포타 사장에게 전달해 활발한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한편 토포타 사장은 뉴욕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1972년부터 메트라이프에서 근무, 2001년부터 메트라이프의 국제사업부 문 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농구부, 2연승으로 단독 5위

우리대학 농구부(감독=서대성)가 대학농구 리그전에서 2연승을 달리며 단독 5위에 올랐다. 농구부는 연세대에게 74-72로, 또 조선대에게 84-64로 승리해 2연승을 거뒀다.

바로잡습니다.

본지 제1498호(2010년 11월 1일자) 1면 칼럼에서 필자인 제정스님(정각원 교법사)의 사진이 최우가 뒤바뀌어 가사의 모습이 잘못 게재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정상원 군, 벤치마킹 경진대회 대상

문자안내서비스 등 실제 행정에 반영

동국혁신을 위한 벤치마킹 경진대회 결과, ‘경매를 활용한 수강신청 시스템’을 제안(提案)한 정상원(경영정보) 군이 대상(受賞)했다. 정상원 군이 제안한 ‘경매를 활용한 수강신청 시스템’은 학생들이 매 학기 5천 포인트를 받아 이를 활용하여 원하는 강좌를 선택하는 시스템으로, 명강의나 교수의 명성에 따라 강좌별 포인트가 달라진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지난 9월 6일부터 한 달 간, 총 85명이 참여해 96건의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참신성, 기대효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考慮)해 평가됐다. 그 결과, 정상원 군이 대상, 학교 대표 문자 번호를 만들어서 불편사항이나 궁금증을 문자로 간단히 질문할 수 있는 ‘동국 문자친구’를 제안

한 김준영(식품생명공학) 군과 숙명여대의 오픈식스플랫폼 SNOW를 벤치마킹한 안대준(기계공학) 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시범운영중인 문자안내서비스는 김준영 군이 제안한 ‘동국 문자친구’가 실제로 반영된 것이다. 이외에도 김인범(컴퓨터공학), 김재경(일반대학원 전기공학과), 박찬근(경제학), 임승범(행정학) 군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편 벤치마킹 경진대회 시상식은 지난 12일, 총장실에서 개최됐다. 벤치마킹 경진대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대학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2학기마다 실시해오고 있다.

하성원 기자 sang1@dongguk.edu

찾아가는 캠퍼스 컨설팅 투어 시행

중소기업 컨설팅과 기업 매칭 진행예정

찾아가는 캠퍼스 컨설팅 투어가 서울시와 인쿠르트(주)의 주관으로 오는 15일, 취업지원센터 상담실에서 열린다. 이번 컨설팅 투어는 중소기업 취업에 희망하는 졸업예정자 약 9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 행사에 참가할 6명의 컨설턴트는 1:1 심층상담을 통해 이력서 컨설팅을 지원(支援)한다. 또 참가학생은 컨설팅 과정을 통해 정확한 자기이해 및 중소기업에 취업할 기회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컨설팅 투어에 참가한 중소기업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대학의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대학 역시 취업률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다.

동악로에서



김보혜 기자
boo@dongguk.edu

갈등 해결의 열쇠

우리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미화 노동자들이 지난 6일 민주노동조합과 함께 미화노조를 설립했다. 이를 두고 학교 측과 총학생회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대학 본부는 미화노조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반면 총학생회는 노조를 적극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화노조와 관련하여 교직원과 학생 사이에 갈등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다.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에 노조원들과 총학생회 학생들이 연화원에서 함께 저녁 모임을 가진다는 소식을 듣고 학생서비스팀 직원을 비롯한 총괄지원팀의 직원들이 연화원을 방문해 학생들과 언쟁이 붙었다. 언쟁은 잦아들지 않고 어깨를 밀치는 등의 몸싸움으로써까지 번졌다.

박인우 총학생회장은 “어엿한 학내 구성원인 미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조를 결성하는 일에 학교 측이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교직원들도 직원 노조를 결성하지 않았느냐”고 반문(反問)했다.

이에 학교 측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총괄지원팀의 김범중 팀장은 “학내 구성원이 아닌 미화노동자들이 학내에서 노조를 출범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생서비스팀의 임지한 직원도 “총학생회가 허위사실을 가지고 대자보를 붙이는 등 다른 학생들을 선동(煽動)하는 일을 멈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화노조를 둘러싼 학교 측과 총학생회 간의 대립각은 당분간 풀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갈등의 골도 깊지만 그 해결에 있어서 양측이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서로 갈등을 풀기 위해서 상대측과 대화할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박인우 총학생회장은 “그것은 민주노동에서 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김범중 팀장 또한 “우리는 미화노조와 관련해서 학생들은 물론이고 그 어떤 쪽과도 대화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애초에 미화노조를 둘러싸고 각자의 시각이 다르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학내 구성원 간의 갈등은 언젠가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현재 양측의 태도는 갈등만을 양산해 갈 뿐이다. 해결방법을 강구하기는 커녕 서로 대화할 생각도 하지 않는 구성원들의 태도가 안타깝다.

동대신문의 정기구독 방법이 변경됩니다.

- 2010년부터 동대신문 정기구독이 유료로 전환됩니다.

올해부터 동대신문의 우편 정기구독이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됩니다. 동대신문은 그동안 1만여 동문과 사회단체, 공공기관, 고교 등에 신문을 무료로 우편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점증하는 물류비용과 인터넷 신문과 웹진 발송으로 우편발송 정기구독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자발적 구독료 납부 캠페인을 벌인데 이어 올해부터 전면 유료 구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년 정기구독료는 1만원입니다.

- 동대신문은 동국대학교 발전과 교우선양에 앞장서겠습니다.

올해로 창간 60주년을 맞이하는 동대신문은 앞으로도 정론직필의 자세로 거짓없는 진실된 보도와 다양한 부대사업을 통해 동국대학교 발전을 위해 한층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갈 것임을 독자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학생기자들이 건강한 언론인으로 자라나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독자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연간 정기구독료 : 1만원

※ 입금하실 곳 : 제일은행 114-20-734228 (예금주 ; 동국대학교)

※ 입금하신 후 전화(02-2260-3495)나 이메일(dgupress@dongguk.edu)를 통해 구독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학번, 연락처) 등을 반드시 남겨주셔야 정확한 우편발송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동대신문사

심팩 최진식 회장 특강

◆ 특강 일정 ◆

- 주 제 : 준비하는 젊음과 꿈의 성취
- 일 시 : 2010년 11월 25일(목) 오후 5시
- 장 소 : 본부 중강당
- 참석 대상 : 전교생

◆ 강사 소개 ◆

본교 무역학과 77학번 최진식 동문은 재학 중 무역학연구실(현, 국제통상학연구실)과 타임번에서 동아리 활동을 함.

1982년과 1986년 현대건설과 동양증권에 각각 입사 후 여러 증권사의 임원 및 자산운용사의 사장을 역임 하였으며 현재는 심팩홀딩스를 포함한 4개 회사 오너 회장으로 국제망간협회이사로 활동하고 있음.

최진식회장은 필경장학재단을 설립하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 공과대학 등 재학생 30명에게 각각 300만 원씩 올해 총 9천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함.

사 회 과 학 대 학

2011년 학생회 선거 후보 공약 소개

‘소통’ 과 ‘기본’ 에 충실한 총학생회 건설 목표

총학생회 선거 단독 출마한 권기홍 · 김무성 후보자 인터뷰



▲총학생회장 후보 권기홍(오른쪽) · 부총학생회장 후보 김무성(왼쪽)

제 43대 총학생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총학생회 선출은 우리대학 1만 3천여 명 학생들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로 의미가 크다. 이번 총학생회 선거에는 권기홍(총학생회장 후보 · 법학4) · 김무성(부총학생회장 후보 · 교육학3) 군이 단독 출마(出馬)했다. ‘소통(疏通)’에 충실하겠다는 그들을 만나 핵심공약을 들어봤다.

‘소통’하는 학생회 목표

권기홍 총학생회장 후보자(이하 총학 후보자)는 출마 계기에 대해 “법과대학 학생회장을 하며 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학생들과 함께 직접 학교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자는 생각에서 출마

하게 됐다”고 말했다.

권기홍 · 김무성 후보자는 ‘당신의 목소리가 달는 순간 R·T·You(ReTweet & Run To)’를 선거 구호로 내세웠다. 권기홍 총학 후보자는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고 소통하기를 원하는 순간 달려가 듣겠다”며 선거 구호를 정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무성 부총학생회장 후보자(이하 부총학 후보자)는 “그동안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공감(共感)을 얻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학생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겠다”고 말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후보자는 ‘월·수·금 총학생회를 직접 만난다’는 핵심 공약(公約)을 내걸었다. 매주 월요일에는 중앙도서관 앞에서, 수요일에는 상록원 학생식당에서, 금요일에는 후문 인근 술집에서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

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권 총학 후보자는 “과거 학생회 선배들은 직접 도서관에 가서 학생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들었다”며 “학생들과의 직접적인 만남과 소통을 원칙(原則)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설 것

후보자들은 이번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약 2천 9백 여 명의 학생들에게 서명을 받았다. 권기홍 · 김무성 후보자는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고 한다. 바로 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등록금(登錄金)이며 등록금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기홍 총학 후보자는 “우리대학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등록금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며 “학생 주도의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타 대학에서 실행하고 있는 등록금 3회 연장 및 등록금 카드 납부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후보자들은 현재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어강의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김무성 부총학 후보자는 “‘불교와 인간’ 등 굳이 영어로 진행하지 않아도 될 강의를 영어로 진행해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며 “무분별한 영어강의도 본부 측과 논의(論議)하겠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수강신청의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강의확충이나 전공자 수강신청 보장 등의 공약도 실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기홍 총학 후보자는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 후보자는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대항(對抗)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학정원관리시스템이나 바이오시스템 대학의 이전과 같은 큰 사안의 문제들도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필요

권기홍 · 김무성 후보자는 1만 3천명의 학생들과 함께 하는 총학생회가 되고 싶다고 전했다. 권기홍 총학 후보자는 “이번 출마를 앞두고 다른 대학의 학생회에 대해 알아보았다”며 “학생들과 함께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생회가 부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생들과의 토론 등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당선(當選)된다면 기본으로 돌아가 학생들과 함께 하는 학생회가 되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또 김무성 부총학 후보자는 “연대(連帶)하는 20대가 됐으면 좋겠다”며 “학생들과 함께 느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들은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소통해 나가자”며 학생회와 이번 학생회 선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최진아 기자 gina@dongguk.edu

총여학생회

여학생 복지 실천 목표 행복바이러스 마She멜로



▲정 이예림(좌) · 부 이은화(우)

이번 42대 총여학생회에 회장과 부회장 후보로 각각 이예림(정보통신2) 양과 이은화(불교미술2) 양이 출마했다. 이예림 양은 2009년 정보통신공학과 과대표를 거쳐 2010년 정보통신공학과, 공과대학, 총여학생회 집행부를 거쳤으며, 이은화 양은 2010년 총여학생회 집행부를 거쳤다. 이들은 이번 선거의 구호로 “행복바이러스 마She멜로”를 내세웠다. 자세한 선거 공약으로는 여학생들을 위한 생리공결제 시행, 여러 가지 할인혜택(산부인과할인, 생리대공동구매) 제공, 스타킹, 레깅스, 액세서리, 앞머리 커트 500원 등 정기적인 마켓 개최, 샵존 마련을 추진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다. 또한, 스티디그룹 장소 제공, 정기적인 고아원봉사활동 시행, 문화공연 할인 또는 무료관람기회와 네일아트, 향초 만들기 등 다양한 강좌 제공을 통해 여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행사를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졸업준비위원회



▲김동규 후보자

“빛나는 졸업에 날개를”

졸업 앨범 입찰 투명화, 100대 기업 리쿠르팅 개최 추진에 힘쓰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또한 무료 모의토의시험 확대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구직광고 신문 제작을 하여 정보 전달에 힘쓰겠습니다.



▲주현지 후보자

“부드러운 물이 깊이 흐른다”

학우들의 촬영 준비 시간을 배려하기 위해 촬영을 가을학기 개강 직후 진행하겠습니다. 앨범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취업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취업박람회의 원활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과대학



▲정인후보자 이현재

첫째, 원흥관 열람실내 노트북 존을 추가하고 공기 청정기를 설치하여 쾌적한 면학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공과대 벼룩시장을 개설해 전공서적과 개인 물품을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험기간 중 원흥관 열람실 출입시간을 확대해 학생들의 시험공부에 많은 도움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인후보자 강현구

먼저 공과대 소속 각 학과가 교류할 수 있는 행사를 증진 시키고, 다른 단과대학과의 연합으로 문화의 장을 늘려겠습니다. 또한 공대 학생들을 위한 복지를 개선하고 학생회실의 환경개선 노력을 진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문화관에 ATM기(신한은행)를 설치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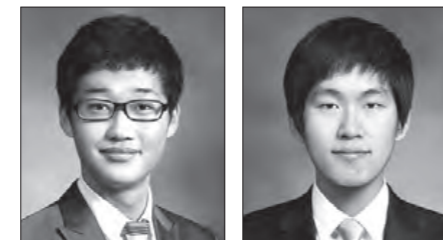
문과대학



▲정 조승현(좌) · 부 진기훈(우)

역동적인 문과대를 위해 집행부 교류 및 소모임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열린 문과대를 만들기 위해 편지글과 운영위원회 및 집행부 회의록을 게시할 것이며, 문과대 커뮤니티 활성화와 문과대 학생회실 개방 그리고 학생회 사업에 대한 스티커 설문을 진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문과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공약을 지켜 文和萬事成을 실현하겠습니다.

법과대학



▲정 광호남(좌) · 부 최원혁(우)

소통으로 하나되는 법대, 많은 학우들과 웃으며 함께하는 법대를 만들겠습니다. 등록금 동결과 학생참여형 등록금 심의위원회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학교가 로스쿨 도입을 시도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학우가 보상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한편 '학우들과 테마여행'을 기획하겠습니다. 또 '오프라인 트위터'라는 게시판을 만들어 학우들과 소통할 수 있게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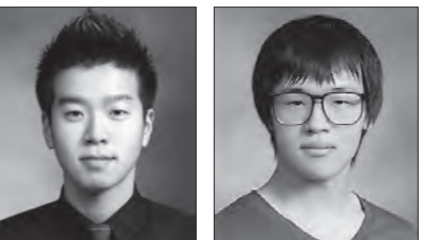
사회과학대학



▲정 최정훈(좌) · 부 최아라(우)

학우들의 요구안을 수용하여 등록금 동결과 학과 구조조정문제의 해결 그리고 생리공결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학우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우들의 복지를 위해 무인도서반납기와 실내휴게의자 설치를 요구할 것이며 생활용품 학생회실에 비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대회 개최 축제행사 지원을 통해 학생간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경영대학



▲정 황재용(좌) · 부 이재희(우)

학우들의 편안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향하는 학생회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편안한 학교생활을 위한 사업을 진행함과 더불어 도서 대납시스템을 확충하고 우편함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학우들의 학업을 위해 학생회실을 개조하여 팀플공간을 확보하고 공모전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함 설치를 통해 학우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사범대학



▲정 이희정(좌) · 부 남보라(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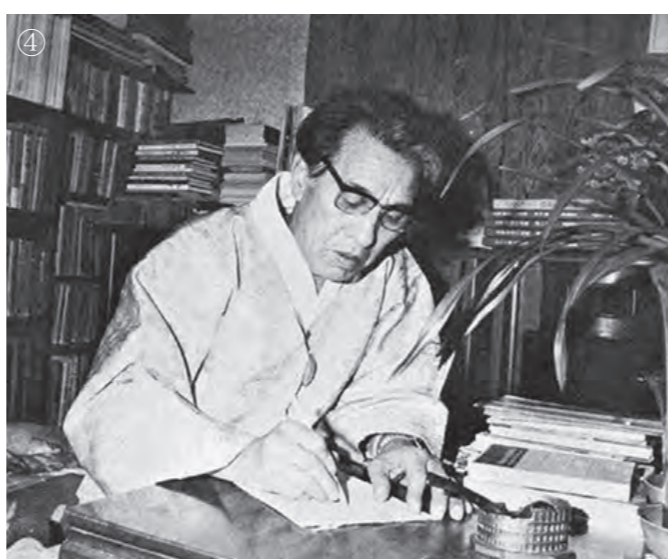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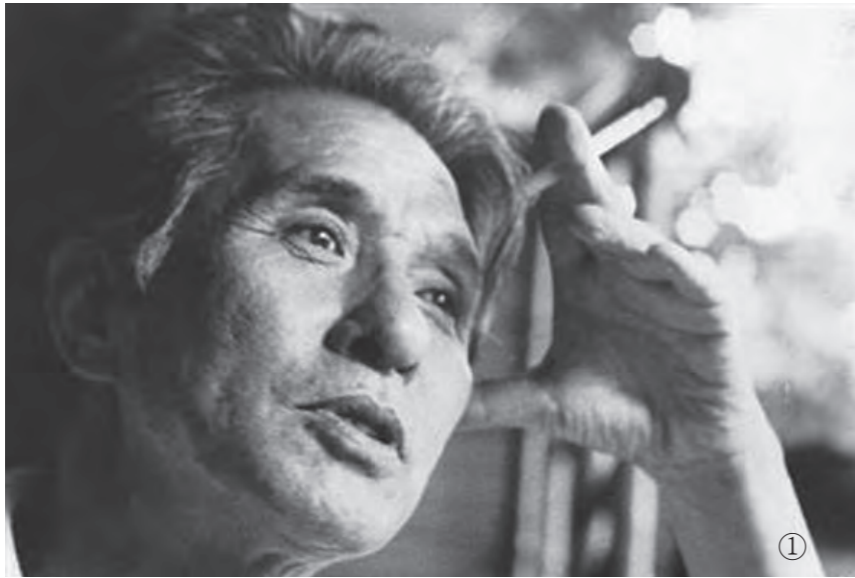
여러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범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영어강의를 재고하겠습니다. 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과교육론 전임교수의 확충도 요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용지원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돼 학우 여러분들이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겠습니다.

동국 문학 100년의 발자취를 따라서 ④ 석정 신석정

불행한 시대에 피워올린 올 곧은 시(詩) 정신

그의 일생을 관통한 것은 석전 박한영에게 배운 불교적 신심과 문학적 신심(信心)이었다

흔히 신석정 시인을 말할 때 전원시인, 목가적 서정시인이라고 하지만, 그의 그러한 태도는 단순한 안빈낙도(安貧樂道)는 아니었다. 종교적으로는 스승이었던 석전 박한영의 깊은 불교적 신심이 바탕이었고, 문학적으로는 변하지 않을 지조(志操)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① 상념에 잠긴 신석정 시인 ② 고향인 전북 부안에 내려가 삶을 보낸 청구원. ③ 새만금 방조제 앞 신석정 시비 ④ 집필중인 신석정 시인.

연재 순서

1. '님의 침묵'의 한용운
2. 질마재 신화의 서정주
3. '송무'의 동탁 조지훈
4. 목가적 서정시인 신석정
5. '낙화'의 신화 이형기
6. '농무'의 신경림
7. '태백산맥'의 조정래

석정(夕汀) 신석정(辛錫正) 연표 (1907 ~ 1974)

▲ 1907년 7월 7일 : 전라북도 부안에서 출생 ▲ 1924년 : '조선일보'에 '소작'이라는 필명으로 시 '기우는 해' 발표 ▲ 1930년 : 상경해 중앙불교전문강원에서 박한영의 가르침을 받으며 불전을 배움 ▲ 1931년 : 시문학 동인이 됨, 회람지 '원선' 편집 ▲ 1939년 : 첫 시집 '꽃불' 출간 ▲ 1947년 : 두번째 시집 '슬픈 목가' 출간 ▲ 1961년 : 김제고등학교 교사 및 태백신문사 고문 됨 ▲ 1967년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라북도지부 지부장 취임 ▲ 1968년 : 한국문협 상 수상 ▲ 1970년 : 마지막 시집 '대바람 소리' 출간 ▲ 1973년 : 한국예술문학상 수상 ▲ 1974년 7월 4일 영면

시 공부와 동국대학교의 인연

신석정 시인이 동국대학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30년 3월 서울로 상경하여 당시 석전 박한영 선사가 경영하던 동국대학교의 전신 중앙불교전문강원에 들어가면서부터이다. 애초에 '문학과 인생'에 대한 고민을 시로 풀어보기 위한 상경이었고 그 목적을 위한 첫 걸음이 중앙불교강원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1924년 이미 '조선일보'에 '기우는 해'를 발표하여 문단에 등단한 그는 한문공부와 노장철학, 도연명의 시, 타고르의 시를 공부하면서 동양적인 정신세계에 깊이 심취해 있었고 중앙불교강원에서 시작한 불전 공부는 이런 그의 시세계를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불경을 배우는 것은 강원에 있게 되니 의무로 지워진 나의 일과였고 문학적적 탐독하는 것이 그때 나의 본업이었다"는 회고에서도 보듯이 시에 관한 열정은 중앙불교전문강원에서의 불전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그에게 생각되었다.

그러나 불전에 대한 공부라 그에게 그저 의무에 불과했던 것은 아니었고, 불교를 통해 자신의 시세계를 찾고자 했기에 불교에 대한 그의 학구열도 상당히 높았다.

이미 만해 한용운의 시에 깊은 관심을 지닌 그였기에 동국대학교와의 인연은 그의 문학적 행로에 이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불교강원에서 '불교유경', '사십이장경', '대승기신론' 등을 정강하면서 불교에 심취했고 원생들과 함께 프린트판으로 문학회잡지인 '원선(圓線)'을 발간했는데, 여기에는 30여명의 승려와 원생들이 참여했다. 이때 선암사 출신의 승려로서 강원에서 함께 공부하던 조종현을 만났는데 조종현은 당시 동요를 주로 쓰다가 후에 노산 이은 상에게 시조를 배워 유명한 시조시인이 되

었다. 조종현과 함께 신석정 시인은 주요한을 찾아 동광사로, 만해 한용운을 찾아 중앙불교 종무원 불교사로, 춘원을 찾아 동아일보사로 다니곤 했는데, 주요한과 만해 한용운은 이후 신석정의 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중앙불전에서의 생활은 이후 '시문학' 3호에 시를 발표하면서 정지용, 김기림, 박용철, 이하운, 김광균 등을 만나 교류하는 데까지 이어졌다.

중앙불전 강원의 은사 석전 박한영

중앙불전에서 신석정은 한때 출가하여 불가에 귀의할 뜻까지 품었으나 고향의 아이와 아내를 뿌리칠 수 없어 결국 포기하고 만다. 불문에 귀의할 것을 포기한 데는 가족뿐만 아니라 문학에 대한 그의 열정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는데, 문인들과의 교류과정에서 그의 갈 길은 불문(佛門)이 아니라 문학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석전 박한영에 대한 은사로서의 경외심은 그에게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었고, "신군 이제 신심이 나는가"라는 석전 스님의 말씀을 종교적으로는 따르지 못했지만, 시와 학문에도 그런 신심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평생 간직했다고 한다.

"학문에 신념이 없으면 언제 어느 때 귀한 지조를 팔아넘기는 속한이 안 된다고 보증할 수 있을까"라는 신석정의 다짐은 모두 석전 박한영에게 받은 교훈이었다. 중앙불전의 은사인 석전 박한영의 정신적 가르침은 이후 서정주, 함형수 등이 모두 중앙불전에서 공부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문학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즉,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중앙불교전문강원에서 공부한 대부분의 문인들이 불교에 기초한 동양적인 정신세계를 시로 썼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근대문학과 동국대학교와의 인연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불교를 통한 정신적 깨우침이 한국문학을 이끌었고 그 접점에 바로 동국대학교가 있었던 것이다. 만해 한용운, 신석정, 서정주 등 한국의 뛰어난 시인들이 불교와의 인연을 통해 한국의 문학이 나아갈 길을 고민했고 새로운 정신세계를 개척해 나간 것이 이를 잘 말해 준다.

자연으로의 귀의와 슬픈 구도

불문에 귀의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신석정 시인이 안주한 곳은 청구원(靑丘園)이다. 가난과 싸우며 인생을 조율하게 살리라 다짐하고 그 집에 청구원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그의 처녀 시집 '꽃불'에 나오는 전원생활이 대부분 그가 스스로 가꾼 청구원에서 얻은 것이다.

이 무렵 청구원으로 찾아온 문인이 장만영, 서정주 등인데 신석정은 당시 문학청년이었다면 이 두 사람을 가장 반가운 손님이라고 하며 그 인연을 소중히 여겼다.

고향으로 돌아간 신석정이 그저 '안빈낙도'를 추구한 것은 물론 아니었다. 의지할 데 없는 정신적 고아로서 괴로워하면서도 스승의 가르침인 '신심'을 갈구하며 시를 위해 정진한 것이 그 당시 그의 생활이었다.

"시정신이 없는 민족, 시정신이 없는 국가는 흥할 도리가 없다. 시정신의 바탕이 되는 것이 신념이요 신념은 바로 지조로 통하는 것이다"는 그의 말이 이런 신심에서 발원된 것임은 분명하다. 신석정 시인의 자연 속에 이후 '문장', '인문평론'의 폐간으로 이어지는 암울한 현실에 대한 의식이 담겨 있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슬픈 구도(構圖)

나와 하늘과

하늘 아래 푸른 산뿐이로다.

꽃 한 송이 피워 낼 지구도 없고
새 한 마리 울어 줄 지구도 없고
노루 새끼 한 마리 뛰여 다닐 지구도 없다.

나와
밤과
무수한 별뿐이로다.

멀리고 흐르는 게 밤뿐이요
흘러도 흘러도 검은 밤뿐이다.
내 마음 돌 곳은 어느 밤하늘 별이든요

"불행한 세대에 태어나서 불행한 속에서 불행한 청춘을 고스라니 장사 지냈다"는 그의 회고처럼, 불행한 세대에 대한 그의 의식은 산, 노루, 새, 검은 하늘 등 자연의 대상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좀처럼 물러가지 않을 시대의 암울 속에서 오직, 산과 푸른 하늘과 검은 밤만이 그를 에워싸고 있다.

완전한 고립 속에서 '슬픔'에 젖은 한 시인이 바라는 것은 '꽃 한 송이 피워 낼 지구', '새 한 마리 울어 줄 지구'이다. 그런 지구가 사라진 곳, 그곳에 그의 자연이, 전원이 놓여 있다.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은 밤하늘의 별 뿐, 이런 절대 고독과 슬픔 속에서 씌어진 것이 바로 그의 '슬픈 목가'들이다. 신심을 잃지 않으려고 밤하늘의 별에 모든 마음을 두려고 하는 시인을 우리는 그저 단순한 전원시인, 서정시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동국대학교와 불교를 통해 맺은 '신심'이 자연 속에서 한 시대의 암울과 희망을 동시에 보는 지조 높은 시인을 낳은 것이다.

김춘식
문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위클리 동악문화

우리 역사와 함께 한 절터의 흔적

'절터와 함께 한 반세기' 기획전
다음달 24일까지 열려

절터 속에 묻혀있던 불교문화와 고대역사의 유물(遺物)들이 한 곳에 모였다.

지난 9일부터 열린 2010년 우리대학 박물관 기획특별전 '동국대학교박물관 발굴성과전 절터와 함께 한 반세기'에는 1964년에 발굴해낸 부여 임강사지 유물들부터 2001년에 발굴을 완료한 선원사지의 유물들까지 전시돼 박물관의 반백년 발굴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불상, 기와, 도자기 등의 유물들이 전시됨으로써 생생한 발굴의 현장과 역사를 느낄 수 있다.

9개의 절터에서 발굴한 100여점의 작품이 전시되는 이번 전시에서 가장 눈여겨볼 것은 강화 선원사지에 발견된 유물들이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의 미술적 양식을 가진 선원사지 유물들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4차에 걸쳐 발굴됐다. 이 유물들은 청자소병, 청자완 등 자기류와 연화문수막새 등 기와류가 주를 이룬다.

먼저 자기류는 총 2,284점으로 12세기 후반부터 14세기까지의 기간에 제작된 청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각종 기와류는 출토 유물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그 중에서도 고려후기의 시대적 특징(特徵)을 잘 보여주는 평기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대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전시(展示)하여 대학 구성원 및 일반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유물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기능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우리대학 박물관은 불교미술 연구의 대표 박물관으로서 반세기에 가까운 전통(傳統)에 걸맞게 반구대 암각화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사찰 및 중요 유적지 등을 꾸준히 발굴 조사해왔다.

한편 '절터와 함께한 반세기' 기획특별전은 우리대학 박물관 2층 기획전실에서 다음달 24일까지 계속되며 지난 8일에는 개막식이 열렸다. 이날 개막식엔 법타 스님과 최응천 박물관장 등 내·외빈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절은 떼려야 뗄 수 없다. 특히 불교가 국교(國敎)였던 고려시절엔 절이 당시 사람들의 문화를 대표(代表)했다. 그런 절터의 길을 따라가면서 불교의 정취에 흠뻑 빠져보자.

최익래 기자 irchoi@dongguk.edu



▲위 <<청동단생불입상(靑銅誕生佛立像)>> 고려시대 선원사지 유물. 높이 8.3cm
▲아래 <<귀면와(鬼面瓦)>> 통일신라시대 분황사 유물. 세로 29.0cm, 가로 26.5cm

자랑스러운 동국인을 찾아 < 11 > 올림픽 복싱 금메달리스트 **김광선 동문**

“챔피언의 삶을 위한 열쇠는 끝없는 노력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은 모든 운동선수들의 꿈이자 목표다. 역대 하계 올림픽에 참가한 많은 한국 선수 중 69명만이 금메달의 영광을 품에 안았다. 이렇듯 올림픽 금메달은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크나큰 명예다.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 자기와의 싸움을 계속했던 88올림픽 복싱 금메달리스트 김광선 동문(체육교육 87졸). 우리대학의 가르침이 올림픽 우승의 원동력이라고 말하는 그를 만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서의 인생과 우리대학과의 인연(因緣)에 대해 들어봤다.

세계적인 복싱 선수 무하마드 알리는 “훈련하는 모든 시간이 힘들었지만 그 고통(苦痛)이 남은 인생을 챔피언으로 살게 해 줄 것이라 생각하며 버텼다”고 말했다. 이러한 알리의 말처럼 복싱은 격렬하고 거친 운동들 가운데서도 최고로 꼽힌다. 지구촌 어떤 운동보다 많이 움직이며 가장 많은 체력이 소모(消耗)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태릉선수촌에 입소한 모든 종목 선수들이 불암산 등산 경주를 할 때, 복싱 선수들이 늘 선두권에 자리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88 서울올림픽’에서 복싱 플라이급 금메달을 목에 건 김광선 동문(체육교육 87졸).



과거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복싱선수로, 현재는 복싱지도자와 교수, 나아가 복싱해설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김광선 동문을 만나 그의 삶과 동국대와의 추억에 대해 물어봤다.

한국을 빛낸 ‘챔피언’

김광선 동문은 20년 전 올림픽 챔피언에 올랐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우승 순간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벅찼다”며 우승당시를 회상(回想)했다. 이어 그는 “우승을 통해 나보다 한국을 세상에 알린 기쁨이 훨씬 컸다”고 말하며 벅찬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한국은 당시 복싱 강국이였다. 그래서 서울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아시안게임 챔피언이었던 김광선의 우승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었다.

그 당시 인기에 대해 그는 “맛더라도 끝까지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에 국민들이 통쾌함을 느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올림픽 우승 직후엔 길거리를 걸어도 니지 못할 만큼 팬이 많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또한 김광선 동문은 청소년 시절부터 복싱 유망주로 각종 대회에 참여했다. 그런 그는 상대의 집중 견제(牽制) 대상이었다. 그는 “상대선수를 기선 제압하기 위해 빵에 잼 대라 상대 선수를 겨우 꿀맛 먹인 적도 있다”며 머쓱하게 웃었다.

길고도 끈끈한 동국과의 인연

김광선 동문은 청소년 시절부터 복싱 유망주였다. 고교생 신분으로 대통령배 복싱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딸 정도였다. 그런 김광선 동문을 입학시키고자 하는 대학 간의 경쟁은 치열했다. 그를 입학시키기 위해 거액의 돈을 건네는 대학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돈보다 의리를 선택했다. 김 동문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날 지도했던 김진영 선생님이 우리대학 체육실에 근무하고 있었다”며 “그분에 대한 고마움으로 우리대학을 망설임 없이 택했다”고 그 결과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대학 교수들이 그에게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줬다. 김 동문은 “올림픽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는 나에게 김대건 교수님과 안행건 교수님이 큰 힘이 됐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보통 체육 특기생들은 일반 학생들에 비해 학교 수업에 덜 적극적이다. 훈련과 경기 등의 일정만으로도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동문은 달랐다. 그는 “태릉에서 아침 운동이 끝나면 바로 학교로 달려 갔다”며 “수업이 끝나면 바로 태릉으로 복귀해야 하는 힘든 일정이었지만 그렇게라도 배울 수 있어 기뻐다”고 학업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다. 이런 그의 열정에 교수들도 좋은 성적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렇듯 우리대학에 남다른 애정을 가졌기에 그는 졸업 후에도 모교와의 인연을 이어 나가고 있다. 그는 은퇴 후 체육관을 열어 복싱의 대중화(大衆化)를 위해 힘썼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김 동문에게는 복싱, 소유진 등 후배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그는 “복싱 영화 촬영을 위해 최민식이 지도해 달라고 찾아와 지도를 부탁한 적이 있었다”며 “우리대학과 내 인연(因緣)의 끈이 길고도 단단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김 동문은 동문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려 노력한다. 비록 졸업은 했지만

모교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그는 “학번 모임, 동문 전체모임, 체육과 동창회 등 동국대 모임이라면 빠짐없이 참여한다”고 모교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즐기는 천재 김광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경험은 억만금으로도 살 수 없다. 김광선 동문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선수촌에서 복싱 선수들에게 챔피언으로서의 경험, 경기운영 등을 전수(傳授)하는 지도자의 면모도 보이고 있다. 또 재치 있는 입담을 자랑하는 그는 KBS의 복싱 해설위원 활동을 겸하고 있다. 2004 아테네 올림픽 때부터 마이크를 잡은 김광선 동문은 광주아시안게임에서도 다시 한 번 감동 넘치는 중계를 약속했다. 그는 “오는 16일부터 복싱 예선이 있다”며 “선수들과 나에게 아낌없는 응원(應援)을 부탁한다”고 말하며 객쩍게 웃었다.

이처럼 도전을 멈추지 않는 그의 좌우명은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다. “꾸준한 운동을 통해 자기관리를 멈추지 않는 것이 내 삶의 원동력”이라며 “후배들도 운동을 게을리 하지 않아 체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후배들이 취업을 준비하기에 앞서 체력을 길러야 한다”고 후배들의 체력에 대해 걱정을 아끼지 않았다. 덧붙여 “학교가 높아 오르내리기만 해도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웃음 섞인 조언(助言)을 아끼지 않았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사람을 낚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노력을 즐기는 천재’ 김광선 동문은 끝없이 도전했고 결국 복싱 계에서 인정받는 ‘챔피언’으로 남았다. 선수로 아시안게임, 올림픽을 정복(征服)한 데 이어 제2의 인생에서도 ‘금메달’을 노리는 그의 끈질긴 도전을 기대해본다.

최익래 기자 irchoi@dongguk.edu



프로필

△1964년 6월 전북 출생 △1982년 인도네시아 대통령배 복싱대회 금메달 △1983년 로마 세계선수권 금메달 △1986년 아시안게임 플라이급 금메달 △1987년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 졸 △1987년 세계 월드컵대회 금메달, 서울컵 복싱대회 금메달 △1988년 서울올림픽 플라이급 금메달 △2007~2008 한평세계 나비콘총엑스포 홍보대사 △2009년 국민체육진흥공단 홍보대사 △한 KBS 복싱 해설위원, 육군사관학교 겸임교수

2011학년도 전기 석사과정 신(편)입학 및 지도자 과정 모집 안내(야간)

모집학과 및 인원

학과	전공	모집인원
불교	불교학, 선학	00명
차문화학(전통)	다도, 제다	
불교사회복지	사회복지	
생사연례	생사연례	
명상상담	명상상담	

지원자격

석사과정

- 국내외 정규 4년제 대학에서 학사 학위자 또는 2011년 2월 학위취득 예정자
- 국내 · 외 대학원 석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예정자
-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지도자과정

- 각 불교 종단의 스님
- 각 신행단체의 임직원 또는 신심이 돈독한 불자로서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자

전형일정

구분	일 자	장 소
원서 교부 및 접수	2010.11.8(월)~26(금)	- 본 대학원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및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 방문 접수
전형일 및 장소	2010.12.4(토) 10:00~	-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

특 점

-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취득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생사연례전공 석사학위취득자 또는 지도자과정(4학기수료) 수료자는 총장명의로 상제에서 인종 봉사자격을 부여 및 장례지도사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함.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재직승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불교인문인문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
- 본 대학교 출신자 진학 시 입학금 면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홈페이지 및 학사운영실로 문의바랍니다.

TEL: 02-2260-3096, 3096, 3097 FAX: 02-2260-8627 http://gsbs.dongguk.edu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2011학년도 전기(89기) 신입생 모집 (서울/계릉대/영천시청)

1. 모집과정 및 인원 : 석사학위 과정(야간) / 00명

2. 모집학과 및 전공

학과	전공
행정학과	행정학, 정책학, 지방자치
안보·북한학과	외교국방, 국방학, 군사전략, 안보정책, 북한경제, 통일정책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부동산학과	부동산

- * 계릉대는 부동산전공은 없음.
- * 영천시청은 지방자치, 국방학, 사회복지전공만 모집.

3. 지원자격

- ▶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2011년 2월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 ▶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원서교부 및 접수

- ▶ 접수기간: 2010.11.22(월)~11.29(일)
- ▶ 접수방법: 인터넷, 우편 / 방문접수
- ▶ 인터넷접수: http://gsps.dongguk.edu

5. 전형료: 60,000원 (신한은행 140-007-091411(행정대학원)/지원자명으로 입금)

6.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7. 전형일시 및 장소

- ▶ 서울: 2010.12.4(토) 13:30 /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
- ▶ 계릉대: 2010.12.7(화) 19:00 / 계릉대 강의실
- ▶ 영천시청: 2010.12.7(화) 19:00 / 영천시 인재교육원

8. 합격자 발표: 2010년 12월 14일(화) 공고 및 인터넷 게시

9. 문의처

- ▶ 서울: 중구 필동 3가 26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사운영실
TEL: 0212260-3102-3 FAX: 0212260-3978
- ▶ 계릉대: 담당자 C.P: 010-5070-4685
- ▶ 영천시청: 서울 학사운영실 TEL: 0212260-3102-3

10. 기타사항: 본 대학원은 5학기제로 운영됨.

개원 45주년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62년 대한민국 최초로 경찰행정학과를 세웠습니다

2011년 대한민국 최초로 경찰사법대학원이 새로운 획을 긋습니다

동국대학교는 경찰행정학과 끝없는 도전을 통해 지난 48년간 국토와 국민 안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경찰사법 전문가 양성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사회를 향한 경찰사법 전문가의 꿈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에서 이루십시오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제 1기 신입생 모집
원서 교부 및 접수_2010년 11월 22일(월)~12월 2일(목)
전공분야_경찰학/범죄학 및 범죄심리/국가정보학 및 산업보안/교정학 및 보호관찰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pcj.dongguk.edu를 참고하십시오

변화된 총장선출 방식에 관한 학내외 구성원들의 반응

간선 방식 총추위 후보선출 일단 긍정적 ... 의견수렴 보완 지적도

지난 8일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가 제 17대 총장 선출을 위해 출범했다. 총추위는 지난 제 16대 총장 선출 이후 두 번째로 구성된 기구이다. 기존의 교수 직선제 방식에서 총추위 중심의 간선제 방식으로 변화했다. 변화된 총장선출 방식에 관한 학내구성원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내구성원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총장선출의 방식과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지난 8일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가 제 17대 총장 선출을 위해 출범했다. 총추위는 총장 임후보자 중 가장 적격하다고 판단한 3~5인을 선정해 이사회에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2006년에 총추위가 도입되기 전까지 총장선출방식은 교수회와 직원노조가 투표를 통해 선출된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는 방법이었다. 총추위는 지난 제 16대 총장 선출 이후 두 번째로 구성된 기구이다. 변화된 총장선출 방식에 관한 학내구성원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있었던 것이었다.

학내 교수들의 반응

총추위를 통한 간선추천제를 두 번째 시행하는 현재, 교수들의 반응은 선출방식에 대해 일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총추위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 직선제 선거 방식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교수사회 내 파벌 조성, 그로 인한 교수사회의 갈등 등에 대한 문제가 방지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한용수 중문과 교수는 “직접선거방식으로 총장을 추천한 결과 구성원들 간의 줄서기 현상이 보였다. 내편, 내편하는 식의 편가르기 행위로 화합이 무너졌다. 총추위 구성원들이 사심 없이 적합한 지도자를 뽑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장영우 문예창작학과 교수는 “이전 방식의 경우 교수의 권이 총추위보다 더 많이 반영될 수는 있지만 교수사회의 분열을 불러일으켰다. 그런 점에서 총추위의 방식이 더 낫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교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지금의 총추위 방식에는 아쉬움이 따른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범대 A교수는 “교수들이 직접 후보자를 추천했던 방식을 선호한다. 하지만 총추위가 좀 더 개방적으로 교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순성 교수회장은 “다양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인 총장선출방식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대학총장은 일반적인 경영능력 뿐 아니라 대학사회와 교육철학, 우리대학의 교육 이념 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에 있어 전문가인 교수가 그러한 총장에 대한 검증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총추위에서 그러한 검증절차를 거치기 위한 시행세칙이 마련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교수회측도 그에 대한 합리적인 고민 중이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총장선출방식 자체에 대한 교수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장영우 문예창작학과 교수는 “약대에서도 총추위 위원이 나왔는데, 10월 28일에 발령이 난 사람이 11월 2일에 총추위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학교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총추위에 참여해 투표를 하게 되면 여론이 호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총추위원 구성의 문제점에 대해 말했다.

이전의 교수가 직접 투표를 해 법인이사회에 추천하여 건의하는 방식에서 총추위를 통한 간선추천방식으로서의 이행에 있어 대부분의 교수들의 의견은 총장선출방식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사람의 문제라는 것이다. 흥윤기 철학과 교수는 “총장선출 방법은 부차적인 문제이며 일차적으로 총장을 뽑는 교수들이 공정성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숙 철학과 교수 역시 “직선제, 간선제가 중요하다기보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총장선거가 중요하다”며 제도의 문제가 아닌 제도에 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의견수용 폭 넓어져”

총추위 제도를 도입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총장 후보에 ‘외부인사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최근 ‘CEO형 총장’이 주목받는 시점에서 학교의 비약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정·재계 등에서의 외부인사 영입 가능성을 학내구성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또한 내부인이 개혁을 시행할 경우 부딪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비쳐지고 있다. 다만 검증된 외부인사를 모집해야 한다는 점이 난제로 꼽힌다. 또한 기업적인 마인드로 대학운영이 제대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도 떠오르고 있다. 민병록 영화영상학과 교수는 “외부에서 능력있는 분들이 와서 학교 발전에 이바지할 수만 있다면 간선제를 통해 발전을 추구하고, 역량 있는 사람을 총장으로 모셔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운호 동문(연국 93졸)은 “총장 선택을 더욱 폭넓게 할 수 있게 됐다. 때문에 CEO형 총장처럼 사회현실을 대학교육에 적용시킬 수 있는 총장후보가 더 많아질 수 있는 선출방식인 것 같다”고 변경 선출방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문과대 A동문은 “대학이라는 곳은 학문을 하는 특수한 곳인데 경영마인드



▲ 지난 8일 총장추천위원회가 본관 5층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첫회의를 하고 있다.

를 갖고 있는 총장형이 제대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다”고 말했다.

다른 대학 총장선출 방식

또한 총추위 구성인물에 교수, 동문, 조계종, 사회인사, 학부생, 직원, 대학원생 대표위원 등이 포함돼 다양한 학내 구성원의 목소리를 포용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결국 이사회의 결정으로 총장이 결정되는 만큼 이사회측의 책임감이 무거워진다.

김남현(경영 98졸)동문은 “졸업생과 학생대표 등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이 가능하고, 덕분에 더욱 다양하고 활발한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인우 총학생회장은 “이전의 교직원 총장후보자 추천 방식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힘들었지만 총추위 방식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총추위 구성 비율에 대해 박준홍(국통 01졸)동문은 “말로는 학내외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대표를 선정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교수의 비율이 지나치게 많다. 결국 교수나 종단이 결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느껴진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러한 총장선출방식 변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직원노조관계자는 “아직 직원들 간에 모여 논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 다음 주쯤 직원들 간에 총장 선출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세대의 경우,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전환했다가 지난 2004년 다시 직선제로 총장선출 방식을 바꿨다. 숙명여대의 경우에는 교황 선출과 비슷한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한다. 총장선출 시기가 되면 숙명여대에 10년 이상 재직된 교수는 모두 자동으로 총장후보가 된다. 이중 전체 교수의 비밀투표를 통해 10명을 추리고, 다시 5명, 3명으로 후보를 압축한다. 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을 획득한 후보가 나올 때까지 두 번의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을 획득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투표를 통해 득표 수에 따라 후보 2명을 선출한다. 그리고 이들 중 이사회가 최종 선임한다. 총장 선출 제도는 시대에 맞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직선제를 시행하는 대학에서는 간선제 시행을 주장하고, 간선제를 시행하는 대학은 직선제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직선제와 간선제, 둘 중 어느 쪽이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지 쉽게 말할 수는 없다. 총장 선출방식이 이 두 가지만 있는 것도 아니다. 총장 선출제도에 대해서 학내 구성원이 함께 고민해 각 대학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임을 향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특별취재반 dgupress@dongguk.edu
이지원 기자 이슬비 기자 하상원 기자
최익래 기자 강기모 기자 김보혜 기자

Dongguk University Museum Special Exhibition

2010년 기획특별전
백년근학의 역사
문화의 전당

컬터와 함께한 반세기

- 전시기간 2010. 11. 9(화)~12. 24(금)
- 전시장소 동국대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 관람시간 월~금(10:00~16:00)
- 개막식 2010. 11월 8일(월요일) 오후 2시

SPFF STORY FORUM

STOP! 성매매 영상 상영회

동국대학교와 함께하는

일시 2010. 11. 19(금) 오후 1시~4시
장소 동국대학교 문화관 2층 혁명세미나실

주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

[想象예찬] 2010년 2학기 동국 글쓰기 공모전

사고충전! “다 쓴 보고서 받습니다”

<제7회 동국 우수보고서 공모>

- 응모자격 :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 공모대상 : 2010년 1학기 / 2학기 교양수업 보고서, 감상문(독서, 영화비평, 기행문) 등 자유 글쓰기
- 시상내역 : 최우수상 1명 50만 원 / 우수상 3명 각 10만 원

|| 응모마감 || 11월 30일 (화)
|| 응모방법 || 글쓰기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
|| 결과발표 || 2010년 12월 10일(금)
|| 기 타 || 제출할 원고에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기입 바랍니다.
(성명, 소속, 학번, 연락처, 이메일 주소
보고서 공모의 경우 강좌명, 담당 교수명 기입)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http://writing.dongguk.edu
TEL. 02)2260-3380

“지구촌 평화 위해 영적 성숙 필요”

위기극복 위한 ‘G20 세계 종교지도자 회의’ 정각원서 열려

세계 경제위기 극복에 대해 논의하고, 지구촌 평화에 대한 올바른 지향점을 제시할 ‘G20 세계 종교지도자 회의’가 지난 11일 정각원에서 열렸다. ‘진정한 의미의 인류번영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G20 정상회의의 기간 중에 열리는 최초의 모임으로, 세계 각국의 정신계 지도자들이 모여 세계 경제현황과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각국 종교 지도자 위기극복 한목소리

이번 ‘G20 세계 종교지도자 회의’는 혜종 큰스님(조계사 포교원장)의 개회사와 월주 큰스님(지구촌 공생회 이사장), 법타 큰스님(정각원 원장)의 축사로 시작했다.

개회사에서 혜종 큰스님은 “지금 인류가 맞고 있는 세계위기는 인간의 과도한 욕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참여한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를 깨닫고 세계 평화와 위기극복을 위해 깊게 사유(思惟)하고 함께 토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G20 세계 종교지도자 회의’는 세계평화 여성지도자회가 주최(主催)하고 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과 사단법인 ‘지혜로운여성’이 주관했다. 세계평화 여성지도자회는 뉴욕에 본부를 둔 단체로서 전 세계 종교지도자들의 종파와 성, 국경을 초월하여 정의롭

고 평화로운 세상 구현을 위해 발족한 국제적인 네트워크 조직으로, UN에서 열린 ‘밀레니엄 세계평화 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G20 세계 종교지도자 회의’ 또한 종교와 인종을 초월해 물질문명으로 비롯된 인류의 위기를 세계의 종교인이 해결하고자 함께 모여 논의한 뜻 깊은 회의다.

1부(오전)와 2부(오후)로 나뉘어 진행된 ‘G20 세계 종교지도자 회의’는, 각각 ‘새로운 지구촌 규범의 출현’과 ‘탈 번영: 도전, 가능성 그리고 번영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기조연설과 자유토론, 질의응답(質疑應答)을 통해 각자의 생각을 나누고 논의했다.

영적 성숙을 통한 위기 극복

‘새로운 지구촌 규범의 출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1부는 Dena Merriam(세계평화 여성지도자회 설립자)의 사회를 시작으로 5명의 종교지도자들이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주제에 대한 연설에서 Sradhhalu Ranade(영적 지도자 겸 과학자)는 “우리는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고, 가져간 것보다 더 많이 나눔으로서 세계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경제적 번영(繁榮)과 정신적 번영 사이의 위기관계를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재확인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세계 경제위기 극복과 세계 평화 실현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졌다. 이어진 연설에서 현각 스님(화계사)은 “아메리카 드림은 미국의 꿈이 세계의 꿈이 된 것이 아니라 세계의 악몽이 된 것”이라며 “선진국은 악몽을 세상에 강요할 것이 아니라 남을 존중하고 공유하는 삶을 통해 하나가 되는 길을 이뤄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연설을 진행한 Zarko Andric(불교지도자)는 “자본주의적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이로 비롯된 인류의 부적절한 해결책 제시”라는 주제에 대해 진술했다. 연설에서 “자본주의 사회에 속한 우리는 복합(複合)적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대해 부의 번영이라는 하나의 해결책만을 제시 한다”고 말한 그는, “이는 목마른 자에게 바닷물을 주는 것과 같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영적인 성숙(成熟)을 통한 내적 만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인류의 번영 위한 미래 방향 제시

오후 2시에 시작된 2부는 ‘탈 번영: 도전, 가능성 그리고 번영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유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사회를 맡은 현경 교수(신학자)는 “참석한 여러 사람이 함께 생각하고 토론할



으로서, 우리가 당면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적절한 대안을 모색(摸索)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후 시작된 자유토론에서는 세계 경제위기와 기후변화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관한 논의가 계속됐다. 토론에 참석한 명법 스님(운문사)은 “우리는 남에게 작은 것이라도 보답함으로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며 “명상만으로는 완전히 남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영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남에게 베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류의 현 상황에 대해 파키스탄의 철학자 Ejaz Akram(수피 철학자)는 “지금 현재 우리는 가야할 길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토론에서 “물질적 풍요(豊饒)에 비

해 정신적으로 우리는 매우 빈곤한 상태”라며 “우리가 물려받은 지혜로서 정신적 빈곤을 타파(打破)하고 올바른 길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

세계 각국의 종교지도자들이 참석해 세계 경제와 평화에 대해 논의한 ‘G20 세계 종교지도자 회의’는 6시간에 걸친 기조연설과 자유토론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한편 이날 회의의 내용은 세계평화공동선언문으로 채택됐다.

회의에 참석했던 관련 인사들은 “전세계 지도자들과 전 세계인들이 모두 마음을 모아 이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 나가자”며 “채택된 내용을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결의했다.

강기모 기자 km1004@dongguk.edu

‘일상에서 본 식민지 조선 연구’ 공동 발표 성과

우리대학 - 교토 불교대, 지난 5일 공동 학술 심포지엄



우리대학 국제화추진단과 대외교류연구원, 교토 불교대학 국제교류센터에서 주최하는 동국대학교 · 교토 불교대학 공동 학술 심포지엄 ‘식민지 조선의 일상을 읽는다’가 학림관 소강당에서 지난 5일 열렸다.

이번 학술 심포지엄은 우리대학과 교토 불교대학 간의 학술교류를 통한 연구 성과를 알리자는 취지에서 열렸다. 우리대학과 교토 불교대학은 지난 1985년부터 한·일 학자들이 교류를 통해 학문의 폭을 넓히고 양국 간의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기 위해 학술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교류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두번째 공동연구로 양 대학 역사학계 교원 4명의 ‘일상에서 본 한일 근현대사’가 공동 연구주제로 채택됐다. 한철호 역사교육

과 교수(대외교류연구원 원장)는 연구주제를 ‘일상에서 본 한일 근현대사’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민중들의 일상을 살펴봄으로, 그 속에 포함된 식민성의 본질을 알아보기 위해 섰다”고 밝혔다.

올해 그간의 연구 성과를 알리기 위해 공동 학술 심포지엄 ‘식민지 조선의 일상을 읽는다’를 열게 됐다. 특히 이번 연구는 지난 번 연구와 달리, 연구 성과를 연구논문집 발간(發刊)이 아닌 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발표하여 일반인들의 참여도 이끌어 냈다는 평이다. 또 발표 내용을 수정, 보완해 내년 4월에는 양국에서 연구 성과를 정리한 책도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 심포지엄에서는 역사교육과 한철호 교수, 경주캠퍼스 국사학과 김진재 교수, 동지시대 글로벌 스테디즈연구과 오타 오사무 교수, 교토 불교대 역사학부 하라타 케이치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첫 번째로 한철호 교수는 ‘일제의 한국병탄(併呑)에 대한 한국민의 대응과 인식’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한철호 교수는 100년 전 일제가 한국을 병탄한 것에 대해 한국민이 어떻게 대응·인식하였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병탄의 성격과 그 의의를 새롭게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한철호 교수는 “일본의 강력한 통제 및 감시, 억압 등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동향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당시 한국의 상황을 파악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오타 오사무 교수는 ‘전시(戰時期) 대구 조선인 여학생의 ‘혼란’과 ‘불인’-1937년의 일기에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오타 오사무 교수는 1937년 대구의 조선인 여학생이 쓴 글을 통해 식민지 조선에서의 교육정책과 교육실태, 식민지 지배구조의 일단(一段)을 밝혀내고자 했다.

하상원 기자 sang1@dongguk.edu

근대 한국불교 최고의 명저 『朝鮮佛敎通史』 최초 완역본

『역주 조선불교통사』 출간 경찬법회

한국불교 역사가 살아 숨쉰다!

- 1 상편 불화시처(佛化時處) (→) 삼국 고려
- 2 상편 불화시처(佛化時處) (←) 조선
- 3 중편 삼보원류(三寶源流)
- 4 하편 이백품제(二百品題) (→)
- 5 하편 이백품제(二百品題) (←)
- 6 하편 이백품제(二百品題) (三)
- 7 원문개정판 朝鮮佛敎通史 (교감판)
- 8 총목차·색인집



이능화 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조선불교통사역주편찬위원회 역주
2010년 9월 10일 발행
4·6배판
1-7권 고급 양장, 8권 반양장
정가 400,000원
ISBN 978-89-7801-286-7(set)

동국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 시_ 불기 2554년(2010년) 11월 15일(월) 오후 4시
장 소_ 조계사 대웅전

귀의삼보하옵고,

근대 한국불교 최고의 명저로 평가받는 『朝鮮佛敎通史』(이능화 편찬, 1918년 신문관 발행)를 92년 만에 우리말로 완역하여 전집으로 간행하였습니다.

종립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산하 불교문화연구원에서 역주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번역에 착수한 지 8년 만에 해제와 주석 그리고 교감(校勘)한 원문을 곁들여 동국대학교출판부에서 『역주 조선불교통사』 전집(전8권)을 완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과 학교법인 동국대학교가 함께 『역주 조선불교통사』 전집의 출간을 축하하고 널리 알리는 경찬법회를 열고자 하오니 부디 왕림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승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정련 합장

주 최_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주 관_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동국대학교출판부
2260-3484, 2264-4707

화제의 책

그가 바라던 평범한 행복



너는 나다

지은 이 손아람 외 5명
펴낸 곳 철수와영희
13,000원 / 256쪽

대구에서 태어난 전태일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고 17세의 나이에 평화시장 의류제조 회사에 재단사로 입사했다. 그곳에서 그는 싼 값의 어린 노동자들을 고용해 근로기준법을 어겨가며 이익을 내는 회사를 목격한다. 이에 전태일은 동료 재단사들과 '바보회'를 조직해 노동조건 실태를 조사하고 당국(當國)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하지만 그 누구도 바꾸려 하지 않는 현실 앞에 비애를 느

긴 그는 결국 죽음을 택한다. 그로부터 40년 후,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40주기'를 맞아 '레디앙', '후마니타스', '살이보이는창', '철수와영희' 출판사가 함께 우리 시대의 전태일인 학생, 청년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응원하는 한 권의 책을 만들었다. 책은 '전태일 열전', '나태일&전태일', '열혈청춘', '선생님, 노동이 뭐예요?' 등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은 평화시장 앞에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러던 중 전태일은 근로기준법 책을 꼭 안은 채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그는 그 상태로 외쳤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노동자들을 흑사시키지 말라" 그리고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이 말을 남긴 채 전태일은 40년 전 우리의 결을 떠나갔다. 하지만 책에서는 '만약 전태일이 살아 우리들 곁으로 돌아오면 어떻게'라는 가정(假定)을 해본다. 그리고 1970년대의 전태일이 살아 돌아온다면 대규모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는 대신, 응원을 필요로 하는 우리 시대의 전태일들을 만나러 갈 것 같다고 한다. 지난 40년 동안, 전태일의 죽음으로 노동사회는 많이 변했지만 우리들의 현실은 여전

히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20대의 나이에는 등록금을 벌고 방세를 버느라 알바를 전전하다가, 계약직이니 비정규직이니 인턴으로 떠돌다 보면 나이 서른이 된다. 나이 서른을 바라볼 때쯤 그나마 취직을 해서 10년 정도를 다니면 또다시 잘리지 않기 위해 다른 직장으로 옮겨 가야 한다. 그렇게 일자리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우리도 결국 이 시대의 '들치기'가 아닐까?" "너 아니어도 여기서 일할 사람은 많다" 대부분의 알바생들이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에 저항하지 못하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나 아니어도 이곳에서 일할 수 있는 수많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다. 청년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는 지 오래라고 한다. 실업자가 많아질수록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더 많아지고 규제는 심해질 것이다. '너 아니어도 여기서 일할 사람은 많다'라는 대답이 더 자주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난 40년 동안 바뀐 현재 노동사회의 모습이다. 우리는 언제쯤 실업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전태일을 만날 볼 수 있을까.

하상원 기자 sang1@dongguk.edu

신간안내



불교사회경제사상

지은 이 박경준
펴낸 곳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00원 / 420쪽

아 40년 가까이 천착(穿鑿)해 왔다. 그는 이 책에서 '우선 불교가 비사회적이라는 인식에 대한 원론적인 비판과 해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저자의 논의가 의미 있는 것은 불교의 이념을 현실 속의 살아있는 가르침으로 구현하려는 노력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이러한 노력이 거듭되어야 격변하는 21세기에 신선한 생명력을 가진 종교로서 불교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고 주장한다.

불교는 개개인의 깨달음을 중시하며, 해탈과 열반을 목표로 수행을 강조하는 종교다. 그렇다면 불교인은 과연 현실의 일상을 탈피하여 초세간적 피안의 세계만을 추구해야 하는가? 현대사회의 생명위기 상황에서 불교는 어떠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불교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이 책의 저자인 우리대학 불교학부의 박경준 교수는 이러한 불교의 현실에 대한 딜레마를 학문적 과제로 삼



의회선거커넥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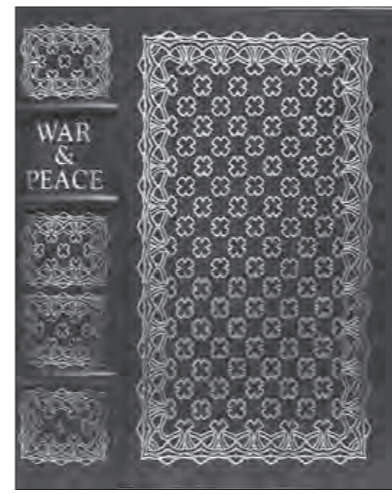
지은 이 데이비드 R. 메이휴
옮긴 이 김준석
펴낸 곳 동국대학교 출판부
12,000원 / 208쪽

불구하고 메이휴가 찾아낸 기본 이치는 여전히 미국 연방의회나 한국 국회의 지배적인 동력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메이휴의 주장에 대해 제1장에서는 의원이 어떤 활동을 하여야 다음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지 설명하며 제2장에서는 재선을 위한 활동에 매진(邁進)하는 의원들이 집단으로 행동할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 밝히고 있다.

안신정 수습기자 jekyl@dongguk.edu

방현수 교수의 독서산책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전쟁과 평화

지은 이 레오 톨스토이
옮긴 이 Louise, Aylmer Maude
펴낸 곳 Easton Press
1981년도 작

전쟁과 평화(War and Peace; Easton Press, translated by Louise and Aylmer Maude)는 러시아의 문호(文豪) 레오 톨스토이가 1865-1869 사이에 러스키 베스트니크 라는 잡지에 연재를 시작으로 1869년 단행본으로 출판할 때까지 여러 번 고쳐 써서 완성도를 극대화 시킨 불후의 명작이다. 톨스토이는 이 역사소설에서 1805년부터 1812년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과 패배까지 러시아의 다섯 귀족가문사람들의 사랑과 배신, 전쟁터에서 겪는 삶과 죽음의 체험, 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인간의 평등과 박애 등을 역사적인 인물과 가상의 주인공을 통해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는 소설 속에서 그것이 전쟁터장면이든 무도회장 장면이든 눈발위의 트로이카 경주 장면이든지 간에 HDTV 화면을 보듯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다.

19세기 초 러시아에서는 18세기 에카테리나 여제의 명령으로 궁정에서는 러시아어 대신 불어를 사용하였다. 그 때문에 귀족들은 대개 불어를 일상 대화를 하였다. 전쟁과 평화의 러시아어 원문을 보면 불어를 많이 사용한다. 첫 장의 시작부터 2페이지가량은 불어로 쓰여 있다. 보로디노 전투에서 러시아 장군들조차도 중요한 대화는 불어를 쓴다. 그러나 전쟁과 평화에서 불어는 점점 줄어들어 나중에는 거의 러시아어만 사용한다. 물론 톨스토이의 불어사용은 나폴레옹의 물리적 침략이전에 문화적으로 프랑스의 침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묘사하기 위함이다. 그는 사치스럽고 세속적인 것은 모두 프랑스적이며 투숙적이고 영혼이 깃든 것은 러시아적이라고 생각했으며 최후의 승자는 후자라고 믿고 있었다. 보로디노에서 나폴레옹과 쿠투조프가 싸울 때 전투의 천재(天才)인 나폴레옹은 자신만만했고 그의 군대는 장비가 잘 준비되었

다. 반면에 쿠투조프는 겸손하고 신앙적이며 그의 군대는 장비도 보잘것없었다. 그가 전투에 승리 할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인의 애국심과 전투를 전투가 흘러가는 대로 적응한 쿠투조프의 임기응변이었다.

포르트 베주코프의 사악한 처인 엘레나는 프랑스문화에 젖은 피터스부르크에서 살롱을 경영하며 사치스럽고 부도덕하게 지내다가 심장마비로 죽게 되나 러시아적인 색채가 강한 모스크바에서 사는 나타샤 베주코바는 날씬하고 명랑하며 사랑을 갈구(渴求)하는 시련이 많은 소녀였지만 시련을 이기고 마침내 상처받은 포르트와 결혼한다. 10년 후 그녀는 많은 자식들을 거느린 현명하고 영적인 러시아여인으로 변한다.

톨스토이는 지적이고 세련된 안드레이 볼론스키와 세련되지 못하고 감정적인 포트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고집불통인 아버지가 있는 안드레이는 이지(淸淨)적이고 논리적이긴 하지만 홀로 있기를 좋아했다. 그는 러시아군을 개혁할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그의 뜻도 사랑도 이루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입을 상처로 죽고 만다.

그러나 다소 엉뚱한 행동을 하지만 언제나 자기영혼과 대화를 주고받는 베주코프는 농민철학자인 카타야에프로부터 마침내 인생의 참뜻을 깨닫는다.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명상과 자기반성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과 끊임없이 대화하면 우리의 지적능력도 영혼도 성장할 수 있으며 궁극적 행복도 얻을 수 있음을 말해준다.

(수학과 교수)

동옥고

인삼복령·천마·지황·물로 만든...

품목허가번호 000001

동옥식품 부설 와음근자원연구소
(생명과학과 명예교수 이 민 중)
문의 전화: (02)2265-9156-7 (031)774-9515
011-204-9154 011-470-2211
홈페이지: http://www.dongokgo.com

동옥고는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동옥고는 천연물 재료인 인삼, 복령, 천마, 지황, 꿀 등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식품으로, 병 후 회복기에 있는 병약자나 노인들의 건강 증진, 지구력을 요하는 수험생 또는 정신집중이 필요한 직장인들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며, 여성들에게는 피부를 윤택하게 해주며 변비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성장기 어린이

수험생

직장인

노약자

어약자

자매품

초코 동옥고

자매품 초코동옥고는, 동옥고를 섭취하는 분들께 휴대가 간편하도록 만든 제품이며, 어린이나, 학생, 직장인, 여행자들에게 휴대가 쉽도록 하였습니다. 초코동옥고로 건강하고 즐거운 일상이 되세요.

제품의 종류 1kg/500g/300g과 자매품으로 초코동옥고가 있습니다.

새 생명이 싹트는 화창한 봄날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으로 나른해지기 쉽습니다. 건강식품인 "동옥고"와 "초코동옥고"로 더 활기차고 역동적인 삶이 되세요. 감사한 분들에게 사랑과 효도를 표하는 상품으로 좋습니다.

◆ 판매처: 구내생활협동조합 (TEL. 02-2260-8949)



김건욱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달하나 천강에

스마트폰 동기화

우연히 마주친 대학원생이 밝은 표정으로 길을 재촉한다. 최신 스마트폰을 받으려 대리점에 간다고 한다. 행복해 보인다. 하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그런 것이 꼭 필요해?'라고 생각하고 학생의 걸음을 바라보았다. 요즘 TV, 갈거러, 지하철 등에서 손가락으로 문지르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스마트폰족이 많아지는 것은 맞다. 그러나 나는 얼마전까지 스마트폰은 값비싼 장난감, 시간 잡아먹는 괴물로 비유되는 사치품(奢侈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대세를 거부할 수는 없는지, 지난주 인터넷 사용중에 스마트폰을 충동구매하고 몇 일동안 이것저것 기본정보를 설정했다. 이를 걸렸는데, 몸이 빠근할 정도로 집중해서 전화기와 놀고 있었다. 컴퓨터의 어지간한 프로그램이 한 손안에서 돌아가고 어떤 것은 컴퓨터보다 더 편하다. 메일은 기본이고, 웹으로 일정과 주소록을 작성하면 핸드폰으로 금세 전달되고 핸드폰에서 수정하면 웹으로 가 있는 것이 신기하다. 여기서 음악과 동영상도 된다고 하면 팔불출이 될 것 같다. 전문 앱스토어에 가면 '이렇게 돼?'라고 생각하는 기능들이 나의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비웃는다.

돌아보면 컴퓨터를 처음 알고 가지고 싶다고 생각한 것은 초등학교때였다. 당시 비싸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워 서점에서 컴퓨터 관련 책을 사서 종이 자판을 두들기며 상상하고 있었다. 80년대 중반에 Apple II를 사용했는데 그때와 정량적으로 비교하면 프로세서 속도는 천배, 메모리 용량은 백만배 많은 공룡이 천연색 얼굴을 하고 내 손안에 있다.

변천사를 살펴보면, 특정장소에 모시는 컴퓨터, 집에 자리 잡은 컴퓨터, 가방 안에 컴퓨터, 그리고 손안의 컴퓨터로 왔고 그러한 시대가 얼마 전에 시작했다. 길거리에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글을 올리고 메신저로 단문자를 날린다. 때와 장소 상관없이 남들이 무엇을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공식적으로 엿볼 수 있고 공유한다.

하지만 주소록, 일정뿐만 아니라 나도 다른 이들과 동기화가 되고 있는 듯하다. 깊은 생각 후에 정리된 방향으로 나의 삶이 나갈 수 있도록 스마트한 폰은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가끔은 귀를 막고 자신의 생각대로 무모하게 시도할 필요가 있다. 누가 알겠는가 우연히 나만의 좋은 맛집을 발견할지, 방금 전에 사무실에서 조용히 생각하다가, 핸드폰을 드는 내 자신을 보고 핸드폰 어플(Application) 몇 개는 지웠다.



동문칼럼
김동문
토목공학과 78졸
두산건설 토목부 부장

후배들에게 전하는 말

늦은 가을 느티나무 낙엽(落葉)이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한해를 마무리한다는 생각에 아쉽기도 하고 나이를 먹어 간다는 슬픔도 생긴다. 동국대학교의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와 인생선배로서 몇 가지를 적어볼까 한다.

필자는 토목공학과 74학번으로 솔직히 말하면 학창시절에 대한 추억은 ROTC에 대한 기억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졸업 후에는 바로 두산건설에 입사해 29년 동안 전공을 살린 토목인으로 살아왔다. 주로 건설 현장에서 근무해왔다. 오랜 현장 경험 동안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며 살아왔지만 퇴직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이 시점에 서야 지난 시절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을 깨달아가고 있다. 이에 후배들에게 인생에 대한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후배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현재 사회에는 전문 기관의 교육이 활성화되었다. 후배들이 학회 등에서 주관하는 세미나나 강의에 참석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데 노력했으면

좋겠다. 더불어 학부시절 전문서적을 열심히 읽어두었으면 하는 바이다. 졸업 후에 현장 실무에 종사하다보면 전문서적을 볼만한 여유가 없다. 나도 토목 분야에서 살아남기 위해 시간이 나는 대로 설계서, 시방서, 구조검토서 등 현업과 관련되는 전문 서적을 열심히 읽고 있다.

이러한 평상시의 독서가 발주처 감독이나 감리들에게 현장의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이해, 설득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곤 한다. 또한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격증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필자도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특히 FTA가 체결된 이후에는 자격증이 국제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수록 자격증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두 번째로 후배들이 건강에 유념해 주었으면 한다. 아무래도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다보니 체력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느낀다. 후배들 역시 취업에 앞서 튼튼한 체력을 가

지길 바란다. 매일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체력은 실무현장에서 큰 자산이다.

세 번째로 현대사회에서는 '인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밝혀두고 싶다. 졸업 후 30여 년간 건설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점점 갈수록 인맥이 중요해 짐을 느낀다. 각 계각층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중요하다.

더불어 각계각층의 사람을 친구나 선배처럼 가까운 사이로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멘토(Mentor)의 존재 또한 사회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사회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고민을 털어놓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서로 논의할만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큰 자산이 될 것이다.

빌게이츠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이다"고 말했다. 필자는 후배들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끊임 없는 노력을 통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학생칼럼
성재웅
건축공학과 2학년

학생 주체의식과 참여의식

얼마전 학교의 가을 축제인 동연제와 목매기요제가 열렸다. 동국대학교 최고의 가수를 뽑는 목매기요제는 여러 해 동안 많은 관심을 받아온 큰 축제다.

특히 목매기요제 같은 경우 초대가수들도 화려하기 때문에 학우들에게 큰 집중을 받게 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목매기요제 전에 또 하나의 큰 축제가 있다는 것을 많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바로 동아리들의 연합축제인 동연제이다. 동연제는 공연동아리들이 각각동아리의 끼와 재능을 발휘해 학우들에게 자신들의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무대이고 그로인해 학우들에게 자신들의 열정을 뽐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동연제는 공연동아리들이 자체적으로 여는 공연보다는 훨씬 더 큰 무대이기 때문에 각 동아리들은 이 큰 무대를 위해서 더욱더 많은 노력을 쏟는다. 하지만 결론만 먼저 말하고 보자면 이번

2010동연제는 '대실패'라는 수식어가 알맞지 않을까 생각된다.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다. 작년보다 훨씬 작아진 무대도 그러하며 늦어진 홍보도 그러하고 무대장치도 한 그러했다. 하지만 가장 실망스러웠던 부분은 적은 관중수, 즉 학우들의 참여도였다.

사실 이런 축제에서 관중동원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초대 가수다. 항상 이런 축제를 할 때 초대 가수는 누군지 mc는 누군지가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다. 초대가수가 유명해야만 학우들은 관심을 가지게되고 초대가수를 보기 위해 공연에 오게 되기 때문에 초대가수섭외에 열을 올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지사이다.

결과적으로 동연제의 관중동원은 대실패였고 관중석은 텅텅 비고야 말았다.(사실 텅텅 비었다는 것을 아는 학우들이 얼마나 있을까도 궁금하다.)결국 동연제는 소위 말하는 '그들만의 축제'가 되버렸다.

하지만 여기서 안타까운 점은 초대가수에 대한 것이 아니다. 안타까운 것은 학생이 주체가 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축제에 초대 가수들만 집중되는 관심이다. 공연동아리들은 공연을 위해 많은 땀과 노력으로 공연을 준비하지만 정작 학우들이 알아주는 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자신들을 신나게 해주는 초대가수인 것이다.

따라서 자신들과 같은 학우들의 열정이 가득 담긴 무대는 뒷전이 되버리고 초대가수들의 신나는 퍼포먼스만을 기대하는 축제가 되어 버렸다. 과거 대학 축제의 주인공은 연예인들이 아니라 그 축제를 이끌어가는 대학생들이었다. 하지만 학우들간의 열정과 노력을 이해받고 지지할 수 있었던 과거의 축제는 이제 더 이상 우리학교에서는 찾기가 힘들다. 우리 축제의 주체는 누구인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축제를 만들고 함께 참여하는 참여의식이 절실하다.

만평
전대일 열사 서거 40주년...
'우'가 좀더 좋은 세상에 살기 위하여 권위권력을 권위하고 배려 에모리형전대일... 40년후 2010년
최저명령 4300년

백 선 아 기자 amy@dgu.edu

“디지털 스토리텔링” 공모전 공고

동국대학교 2010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콘텐츠 發展所』

세상을 풍어가는 동국인의 스토리

1. 지원 분야

소재	적용 콘텐츠	시상 규모
인문·과학적 소재	연극, 영화, 방송영상물,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최대 2백만원
문화원형 소재	스마트폰 앱(App) 등의 희곡, 대본, 시나리오	

※ 소재의 구분
1) 인문·과학적 소재: 문학, 역사학, 지역학, 철학, 종교, 과학, SF, 민속, 연극, 예술 등 분야소재
2) 문화원형 소재: 오랜 역사 속에 형성된 우리 전통 신화, 전설, 정지, 외교, 군사, 의식주, 건축, 의례, 기술, 음악 등 분야소재

2. 신청형태, 자격 및 출품수
* 신청 형태: 동국대학교 재학생 단독 또는 그룹
* 신청 자격: 동국대학교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
* 동일인(팀)의 출품 수 제한은 없음

3. 시상 및 상금

단 계	비 고
총장상 (1명)	상금 200만원
산학협력단장상 (1명)	노트북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단장상 (1명)	아이패드
콘텐츠발전소장상 (4명)	아이패드기 4세대 (32G)

4. 신청기한: 2010. 11. 30(화) 15시까지

[공모전 참가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http://www.dongguk.edu/html/cooperate/index.jsp>)
* 동국대학교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단 (<http://hunic.dongguk.edu>)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학사공지 (<http://www.dongguk.edu>)

주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단
후원: 서울통상산업진흥원 (재서울테크노파크, 서울상공회의소, (사)한국기술개발사회, (사)문화인재경영협회, (사)한국방송통신융합서비스협회, (사)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주)모스테크놀러지, (주)디인퍼넷, (주)에이씨엔텍, (주)커리어존, 노보시스

The Dongguk Host

제19회 영어수필 경시대회

19th English Essay Contest

대 상 : 동국대학교 재학생
일 시 : 2010년 11월 19일(금) 오후 6시
장 소 : 학림관 J211

* 대회장에서 사전(전자사전 포함) 이용 가능

시 상

1등 (1명)	500,000원
2등 (1명)	300,000원
3등 (1명)	문화상품권

* 수상자에게는 동국대학교 총장 명의의 상장이 수여됩니다.
* 수상자 발표는 11월 26일 (금)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집니다

원서접수 : 2010년 11월 19일(금) 오후 5시까지
접수장소 : 대학 본관 1층 제일은행 옆 동국포스트 편집국 동국대학교 영자신문사 (The Dongguk POST)
문 의 : dgpost@dongguk.edu / TEL 02)2260-3493

동국대학교 영자신문사 동국포스트

제 4 회 동국 시나리오 공모전

2011.01.12-2011.01.14

신청자격 및 신청단위
- 신청자격: 2010학년도 2학기 현재 본교 학부/대학원(석사) 재학생/수료생
- 신청단위: 개인

신청 및 접수기간: 2011.01.12(수) - 2011.01.14(금)

공모부문
- 공연예술: 희곡 / 뮤지컬 대본
- 영상시나리오: TV 드라마 / 영화시나리오 / 게임시나리오 / 애니메이션시나리오

제출기준 및 형태: A4 규격을 중심으로 자유형식으로 작성 (11point 글자)

수상작 발표: 2011.02.01(화) (본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시상내용
- 대상 : 각 부문별 1명(총 2명) 각 100만원 (본 대학원 입학사정 장학 특전)
- 최우수 : 각 부문별 1명(총 2명) 각 50만원
- 우수 : 각 부문별 2명(총 4명) 각 30만원
* 우수 작품이 없을 경우, 해당부문 수상자가 없을 수 있음
* 신청서 제출 시 참여자 친연에게 소정의 기념품 제공

제출물(신청서 접수 시 제출)
- 공모신청서 및 시놉(A4 3매 이내) 1부
- 시나리오 1부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영상미디어대학/영상대학원 학사운영실 (해학별관 1층)
- 연락처: 02-2260-3768, 3764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장



이론 김용현 북한학과 교수

窮鳥入懷(궁조입회)

북한이 지난 9월 28일 제3차 노동당 대표 자회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김정운을 후계자로 공식화했다.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 3대 세습이 현실화 된 것이다. 북한은 후계자 공식화 이후 ‘속도전’을 방불케 하는 빠른 속도로 후계체제 확립을 서두르고 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의 면을 늘려 김정일 국방 위원장과 김정운의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김정운의 초상화도 전국적으로 배포하고 있다.

후계체제 구축의 속도전을 치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문제 때문이다. 68세 김위원장의 건강은 아주 나쁘지 않지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체제의 특성상 김위원장의 유고는 엄청난 권력공백을 초래하여 북한체제를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수 있다. 권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부터 신속하게 후계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북한은 ‘강성대국의 대문’에 진입

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하는 데 그 시간이 불과 2년 남짓하다. 2년 내에 이밥(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기와집에 살 수는 없어도 뭔가 달라졌다고 느낄만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3대 세습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고 후계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 말대로 ‘단번도약’을 시도해야 하는데 주어진 상황은 녹록치 않다.

이렇게 시간과 싸워야 하는 북한에게 더 버거운 장벽은 자원의 고갈(枯渴)이다. 북한은 오랫동안 ‘자력갱생’의 발전노선을 추구해 온 탓에 내부의 자원이 거의 소진된 실정이다.

실상가상으로 지금은 후계체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래서 북한은 외부의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중국과의 관계를 긴밀화하는 것도, 최근 남북관계에서 유화적 태도를 취하면서 금강산관광 재개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

다.

窮鳥入懷(궁조입회)란 말이 있다. ‘품안에 날아든 궁조(아려움에 처한 새)를 버리면 화를 입는다’는 말이다. 곤경에 빠져서 자기 품으로 날아든 새를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들어 보살피 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곤궁에 처한 북한이 지금 남한에 도움의 손길을 뻗고 있는 형국이다. 자존심 강한 북한이 남한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지나친 중국 의존에 대한 불안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궁조를 살렸더니 나를 쪼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든든한 배후지로 중국이 버티고 있는 한 북한에 정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국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에게도 향후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데서나 통일문제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 시점에서 남한이 남북관계를 개선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窮鳥入懷(궁조입회)의 자세로 남북관계를 풀어야 할 시점이다.

사설

여론 수렴의 기회가 더 있어야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가 지난 8일 출범(出帆)했다. 이번 총장선출이 지난 16대 총장 선출과 크게 달라진 점은 총장후보자들의 사전 선거 운동을 엄격히 금지했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해 총추위는 3차 최종회의에 앞서 총장 자격 요건을 갖춘 후보자들에 한해 소견발표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수렴의 과정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물론 선거운동으로 인한 파벌(派閥)형성이나 학내 갈등을 막고자 하는 뜻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지난 총장선출 과정을 살펴보면 선거과열로 인한 학내구성원간의 반목과 갈등이 큰 문제가 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종의 간선제라고 할 수 있는 현재의 총추위가 만들어졌다는 것에는 일부 공감감이 가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총장선출은 향후 4년 간 우리대학의 향방(向方)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최종후보를 선출하는 마지막 날 한 차례의 소견발표만으로 후보에 대한 모든 검증과 여론수렴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그런 과정을 거쳐 아무리 훌륭한 총장이 선출된다 할지라도 구성원들의 공감(共感)을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우리는 학내구성원들이 총장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학내 구성원들 역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우리대학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총추위도 여론수렴의 기회가 적은 만큼 더욱 신중을 기해 최종후보를 선택해야만 할 것이다.

G20 정상회의, 도약의 계기 삼아야

서울 G20 정상회의가 ‘서울선언’을 채택하며 지난 12일 막을 내렸다. ‘서울선언’은 환율문제에 대해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이 반영되도록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환율 유연성을 제고(提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상수지 목표제는 채택하지 않고 ‘에시적 가이드라인’을 내년 프랑스 정상회의 때까지 합의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先進國)과 신흥국 정상들이 세계 경제의 균형 성장을 위해 함께 고민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애초 기대와 달리 국제적인 환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또 ‘경주합의’로 관심이 집중됐던 환율과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를 구체화하고 실효력을 높이는 데에는 실패했다. 각국 정상들은 환율이 시장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했다. 경상수지 문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완벽히 해결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번 정상회의의 의미를 낮게 평가할 수만은 없다. 서울회의는 G20체제가 출범한 이후 기존 주요 7개국(G7)이 아닌 곳에서 열린 첫 회의다.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는 현재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신흥국들의 약진(躍進)을 볼 수 있는 자리였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 개최를 통해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무대에서 의장국으로서의 의제를 정하는 등 역량을 발휘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매우 값진 경험이다. 하지만 G20을 지나치게 정권 홍보에 이용하는 등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번 G20 개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메아리 백선아 기자 amy@dongguk.edu

간송의 문화보국(文化報國)

▲ 조선시대에서 40번째로 손꼽히는 대부(大富)로서 문화재의 대부(大父)가 된 간송 전형필. 그는 문화재에 대한 공부를 하던 중 대부분의 고려청자를 영국인인 존 가스비(Gadshby)가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간송은 철저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가스비에게 “선생이 수집한 고려청자는 반드시 조선 사람의 손에 있어야 한다”며 정당하게 환수를 요구했고 결국 쌀 1만석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소장품의 일체를 넘겨받았다. 그 후에도 국보 70호 훈민정음, 추사 김정희의 귀중한 옥필 등, 간송은 떠났지만 그가 지켜낸 민족의 정신은 오늘날 간송 미술관을 통해 우리 곁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지난 8일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시 총독부를 통해 강탈한 ‘조선왕실의 궤(儀軌)’ 및 우리 도서 1205책을 반환하기로 일본 정부와 합의했다. 비록 일본정부가

‘반환’이 아닌 ‘인도’라는 용어를 선택해 자신들의 잘못을 회피하려 했다는 점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는 이번 반환을 ‘최초의 공식적인 대량 반환’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각(一角)에서는 ‘절반의 성공’이라 부른다. 이번 일본이 반환기로 한 도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적은 수량이고 반환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 제실도서(帝室圖書)와 경연(經筵)은 되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환수에 입하는 정부의 태도는 다소 아쉬웠다. 일례로 이번 반환에 포함되지 못한 제실도서는 정부의 실수에서 비롯된 결과다. 문화재청이 파악한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는 6만점에서 30만점으로 규모와 약 조차도 안 되어 있다. 이번만 아니라 유출 경위도 불분명해 총독부를 통해 강탈된 문화재 외에는 환수할 도리가 없다. 실제로 문화재청에서는 현재 문

화재 조사와 정책 수립 업무를 단 한명이 담당하는 실정이나 무리가 따르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간송을 본받아야 한다. 그가 얼마나 우리 문화재에 해박했고 어떤 마음으로 문화재를 모았는지는 그가 모든 문화재를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문화재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조차 뒷받침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감정에만 호소하는 어린 아이의 행동과도 같다. 충분히 공부하고 들여다보며 우리의 혼이 담긴 ‘역사의 옥석(玉石)’을 가려낸 간송의 정신을 정부가 본받아야 할 때다. ‘동서고금(東西古今)에 문화 수준이 높은 나라가 영원히 합병된 역사는 없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문화재를 모은 간송처럼 이제 우리는 문화의 힘과 돌레를 키워 진정한 문화보국(文化報國)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WEEKLY NEWSPAPER 1950년 4월 15일 창간

발행인 오영교, 편집인 유훈우, 편집장 최진아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60-4907

2011-1학기 모범장학금 신청 안내

1. 모범장학금 신청 전 유의사항

- 이과대학, 사회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대학 학생들은 성적우수장학으로 장학생 전원을 선발하므로, 모범장학 신청이 불필요 합니다.
- 학교 전산상의 오류가 아닌 개인 컴퓨터 오류로 인한 장학금 미신청은 구제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미리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2. 모범장학금 신청 자격

- 1) 강의평가 2010-2학기 1차, 2차를 모두 완료한 자로, 2010-2학기 취득학점 15학점(4학년 12학점), 평균평점 3.0 이상인 자
- 2) 신청불가자: 8학기 이상 등록자, 2011-1학기 복학(예정)자

나. 신청기간: 2010.11.15(월)~26(금) ※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바랍니다.
다. 신청방법: uDRIMS -학사정보-장학-장학생관리-장학신청(on-line신청)-신청하기
라. 장학금액: 수업료 30%
마. 단과 대학별 선발 비율 및 선발 기준: 기표준 참조

3. 단과대학별 선발비율 및 선발기준

가. 선발인원 비율 및 단과대학 연락처

단과대학	선발인원 비율(%) (기준일 2010.11.29)			단과대학 연락처	
	성적우수장학	모범 장학	계		
불교대학	-	12.0	12.0% 이내	02-2260-3098	
문과대학	8.0	4.0		02-2260-3757	
이과대학	12.0	-		02-2260-3750	
법과대학	7.0	5.0		02-2260-3742	
사회과학대학	12.0	-		02-2260-3104	
바이오시스템대학	12.0	-		02-2260-3304	
사범대학	6.0	6.0		02-2260-3112	
경영대학	-	12.0		02-2260-8887	
공과대학	2.0	10.0		02-2260-3862	
예술대학	미술 연극 학부	12.0		-	02-2260-3605
	문예창작학과	8.0		4.0	02-2260-3764
영상미디어대학	8.0	4.0			
학생신청 여부	신청 불 필요	Udrims 신청			

※ 성적우수장학은 별도의 신청없이 2010-2학기 성적으로 선발

나. 선발 기준

단과대학	선발 기준(%)				
	평점평균	교수평가 (경영대·학과평가)	사회봉사	영어강좌	학과참여
불교대학	50	30	10	10	-
문과대학	40	30	10	10	10
이과대학	-	-	-	-	-
법과대학	75	5	10	10	-
사회과학대학	-	-	-	-	-
바이오시스템대학	-	-	-	-	-
사범대학	40	40	10	10	-
경영대학	50	30	10	10	-
공과대학	50	30	10	10	-
예술대학	미술 연극 학부	-	-	-	-
	문예창작학과	-	70	20	10
	영상미디어대학	40	40	10	10

※ 자세한 사항은 해당대학 학사운영실에 확인 요망
※ 영어강좌: 1강좌 당 5점 (최대 10점 부여)
※ 사회봉사: 2010.12.24(금)까지 참사랑봉사단에 제출된 사회봉사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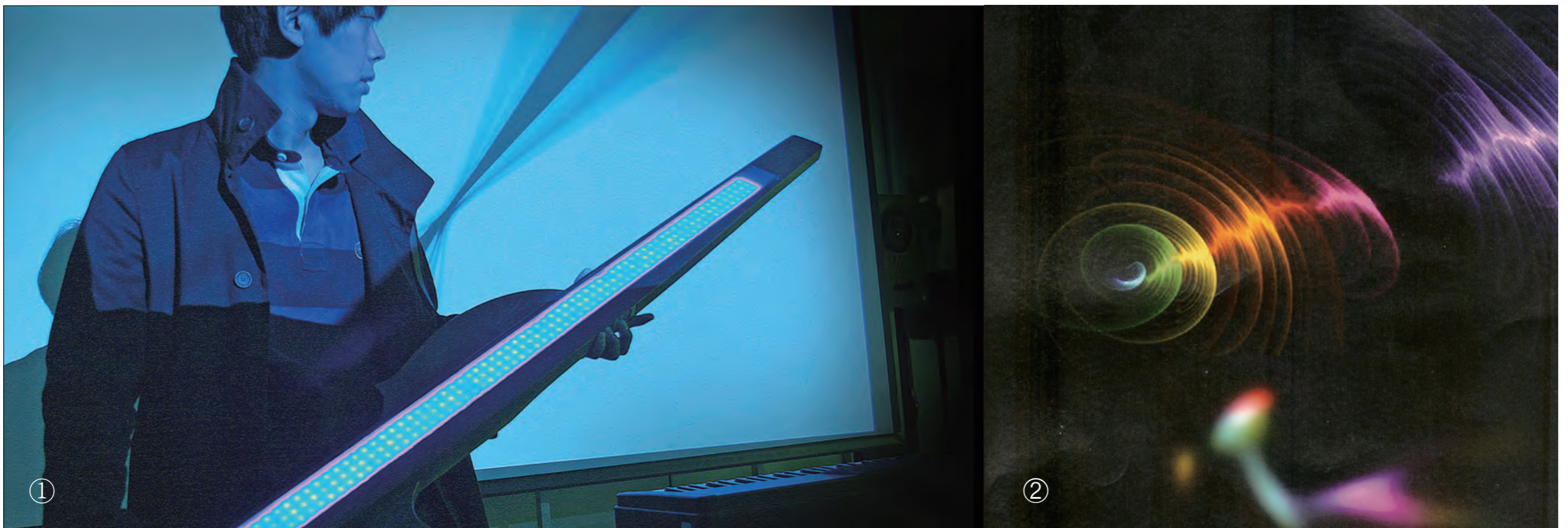
4. 기타

가. 모범장학, 단과대학 수석장학, 전공(학과)수석장학, 성적우수장학은 중복지급이 불가능 함. 나. 이중수혜 대상인 경우 금액이 큰 장학금을 적용. 다. 미등록 휴학생의 장학금(교내장학)은 복학 시 이월하여 지급이 가능 함 라. 전과신청자의 장학금은 전과를 희망하는 단과대학의 선발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학사 지원 본부

● ● ● 금주의 식단 ● ● ●

상	월(11/15)	갈비경단(2200)/치킨가스(2500)/오삼불고기덮밥(2200)/라면부대찌개(2500)
	화(11/16)	두부김치(2200)/피자돈가스(3000)/낙지덮밥(2200)/우거지갈비탕(3000)
	수(11/17)	비빔만두(2200)/치즈돈가스(3000)/불고기멸미비빔밥(2200)/순만두국(2500)
	목(11/18)	간짜육(2200)/스파게티(3000)/김치볶음밥(2200)/버섯전골(2500)
원	금(11/19)	소세지두루치기(2200)/수제돈가스(4000)/해물덮밥(2200)/고등어조림(3000)
	월(11/15)	삼선짜귀(2200)/고구마돈가스(3000)/제육덮밥(2200)/스팸김치찌개(3000)
	화(11/16)	돈삼겹두루치기(2200)/치즈돈가스(3000)/치킨덮밥(2200)/라면부대찌개(2500)
	수(11/17)	치킨탕수(2200)/돈가스(2500)/치즈카레볶음밥(2200)/갈비탕(3000)
관	목(11/18)	미니돈가스(2000)/불돈가스(2800)/제육오징어덮밥(2200)/된장찌개(2500)
	금(11/19)	간짜육(2200)/치킨가스(2500)/짬뽕덮밥(2200)/보쌈(4000)
	월(11/15)	쭈삼불고기덮밥(2200)/불돈가스(2800)/닭고기비빔밥(2200)
	화(11/16)	쇠고기당면덮밥(2200)/피자돈가스(3000)/짬뽕덮밥(2200)
리	수(11/17)	데리야끼치킨덮밥(2200)/치즈돈가스(3000)/제육덮밥(2200)
	목(11/18)	제육떡볶음(2200)/치킨가스(2500)/새우볶음밥과 자장스(2*200)
	금(11/19)	양송이불고기덮밥(2200)/돈가스(2500)/카레라이스(2000)
	월(11/15)	제육떡볶음(2200)/고구마돈가스(3000)/카레라이스(2000)
혜	화(11/16)	닭고기비빔밥(2200)/불고기된장찌개(2500)/제육청정제육덮밥(2200)
	수(11/17)	해물떡볶음(2200)/치킨가스(2500)/불고기숙주볶음밥(2500)
	목(11/18)	주꾸미제육떡볶음(2200)/우거지갈비탕(3000)/고추잡채덮밥(2200)
	금(11/19)	새싹참치비빔밥(2200)/피자돈가스(3000)/산나물볶음밥(2200)



차가운 첨단미디어 속 피어난 따스한 예술

멀티미디어학과 주최 '보는 소리 듣는 영상', 지난 12일 이해랑 극장서 열려

“지난 12일 이해랑 예술극장에서는 멀티미디어 음악공연의 향연(饗宴)이 펼쳐졌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보는 소리 듣는 영상’은 우리대학 멀티미디어학과가 주관했으며 멀티미디어학과 컴퓨터음악전공의 대학생들이 이뤄낸 하모니다. 음악과 다양한 미디어와의 접목하는 실험을 통해 따뜻한 선율(旋律)을 빚어낸 ‘보는 소리 듣는 영상’은 새로운 예술 유기체의 장(場)이었다.”

‘바이올린 연주가 무대 위에서 조용히 흐른다. 무용수는 바이올린 선율에 맞춰 춤을 춘다. 무용수의 몸짓 하나하나가 그대로 스크린에 시각적인 기호로 투영(投影)된다’ 이 모든 것은 무대 위에서 동시다발(同時多發)적으로 이루어진다.

멀티미디어 음악 공연 ‘보는 소리 듣는 영상’의 일부인 ‘PLANETARIUM’의 한 장면이다.

올해로 7회 맞은 ‘보는소리 듣는영상’

우리가 익숙한 공연의 모습과 위의 공연 모습은 다소 차이가 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연의 모습은 단순히 바이올린을 연주하거나, 성악가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형태다. 이는 시각이면 시각, 청각이면 청각 한 가지 효과만을 노린다는 특징이 있

다. 하지만 이번 ‘보는 소리 듣는 영상’은 멀티미디어 공연으로 소리와 무용, 액팅, 성악이 결합되어 예술성을 극대화(極大化)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한국멀티미디어음악학회(SIMM)가 주최하고, 동국대학교 멀티미디어학과 컴퓨터음악전공이 주관하는 정기공연 ‘보는 소리 듣는 영상’이 지난 12일 우리대학 이해랑 예술극장에서 열렸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공연은 총 8개의 퍼포먼스 공연으로 진행됐다.

과학과 예술의 융합이 이뤄낸 하모니

한편 이번 공연은 지난번 공연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식을 취했다는 평이다. 지난 공연 때 무용수가 레이저 빛이 투영된 수조 속에 들어가 내면의 갈등을 온 몸으로 표현한 ‘WATER WAVE’가 단연 돋보였다면 이번에는 성악가가 등장하기도 한다.

소프라노와 음악이 조화를 이룬 작품 ‘Lake’에서 성악가는 무대 위를 걸어 다니며 노래를 한다. 이 노래는 즉각적으로 스크린에 시각화(視覺化)되어 나타난다.

이 외에도 ‘Starry Night’는 반 고흐의 ‘Starry Night’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으로 기타소리와 영상이 어우러져 또 하나의 더

큰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색다른 소통, 체험하는 예술

이뿐만이 아니다. 공연 전에는 ‘Real Brush’, ‘Digilog Frame’, ‘Sound Cap’, ‘the tree’와 같은 설치미술작품이 전시 돼, 관람객들에게 멀티미디어 예술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살아있는 예술로 관람객을 자극하는 작품들은 새로운 소통을 시도한다. 특히 작품 ‘the tree’의 인터페이스인 ‘INPUTO’는 설치작품이자 실제 공연에 사용되기도 했다.

김준 교수는 ‘보는 소리 듣는 영상’ 시리즈를 통해, ‘멀티미디어 예술작품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예술적 실험으로 이어져 국내 공연 문화산업의 흐름을 개선해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보는소리 듣는영상’은 진일보(進一步)된 하나의 예술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와 현대예술의 한 형태를 제시한다. 공연에 과학기술이 개입되어 차가울 것이라는 편견은 버릴 수 있을 만큼 ‘보는 소리 듣는 영상’은 따스한 공감각적 선율에 편안히 눈과 귀를 맡길 수 있는 자리였다.

백선아 기자 amy@dongguk.edu



① 작품 ‘The Tree’를 퍼포먼스 중인 남자. ‘The Tree’는 자연의 소재인 나무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작품으로 연주자가 느끼는 나무의 감정을 컴퓨터로 전달해 주어 소리와 영상으로 표현하고, 스스로 빛을 냄으로써 나무가 느끼는 감정에 좀 더 접근하고 있다. ② 작품 ‘Lost’가 스크린에 비추지는 모습. ‘Lost’는 꿈에 대한 마음을 잃어가는 내용의 작품이다. 퍼포머가 매체를 이용하여 사운드와 영상을 생성함으로써 감정을 전달하고 있다. ③ 작품 ‘D’artope’의 일부. 현재 미디어아트 분야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프로젝션 매핑을 이용하여 비주요 요소들을 공간에 표현해 소리의 요소로 미적 공간을 형성한다. ④ 지난 12일 이해랑 예술극장서 열린 제 7회 ‘보는 소리 듣는 영상’ 공연 포스터.

세상을 비추는 힘 | 세상을 깨우는 이름 | **dongguk UNIVERSITY**

세상을 담는 큰 그릇

당신의 더 큰 미래를 위한 도전 동국대학교 대학원

동국대학교 대학원은 100년 전통의 바탕 위에 전공의 깊이를 더해 미래가 원하는 인재를 키웁니다

2011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대학원명	원서접수기간	면접일	대학원명	원서접수기간	면접일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www.dongguk.edu)를 참고해 주십시오.	불교대학원	2010.11.8(월)~11.26(금)	12.1(수)	문화예술대학원	2010.11.8(월)~11.19(금)	11.27(토)
	법무대학원	2010.11.8(월)~11.26(금)	12.1(수)	언론정보대학원	2010.11.8(월)~11.19(금)	11.27(토)
	행정대학원	2010.11.22(월)~11.29(월)	12.4(토)	국제정보대학원	2010.11.8(월)~11.19(금)	11.27(토)
	경찰사법대학원 (산설)	2010.11.22(월)~12.2(목)	12.4(토)			